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장소기반 에너지자립마을에 나타난 환경관 분석

Analysis of the View of Environment in Place-Based Energy Self-Sufficient Village

2016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환경교육전공

김 길 룡

장소기반 에너지자립마을에 나타난 환경관 분석

지도 교수 김 종 욱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환경교육 전공

김 길 룡

김길룡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6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초 록

“사람들이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되고 정성이 겉에 베어 나오면 이 내 밝아져 남을 감동시키고 세상이 변화게되어 생육(生育)될 것이다. 그러니 세상에서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중용. 23장). 이 글귀를 가슴과 머리에 새기며 환경문제에 한발을 딛고 나부터 작은 실천과 인식변화를 통하여 지구 환경문제에 나머지 한 발을 힘차게 내딛고자 이 연구의 중심을 ‘에너지자립마을’로 정하였다.

현재의 환경문제를 삶속에서 해결하고자 개인, 공동체(마을), 종교단체, 지방자치단체, 정부단위의 에너지자립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에너지자립마을 중 5곳을 선정하여 환경관 분석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의 철학적 사유와 노력들을 내포한 에너지자립마을 주체자들이 추구하는 에너지자립의 공간이야기를 구성하여 공간텍스트를 재구성하였다.

에너지자립마을의 의미구성체를 분석하기위해 인간중심주의(환경관리주의), 생태중심주의(생태합리주의, 생태낭만주의)로 환경관을 구분지었고 환경관 분석을 위한 텍스트분석 평가항목은 자연환경, 인간환경, 환경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 참가자, 수사적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기준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환경관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장소기반 에너지자립마을에 나타난 환경관 분석 결과는 생태중심주의 환경관으로 명명할 수 있다.

첫째, 에너지자립마을은 일원론적 세계관을 함의하고 있었다. 에너지자립마을에서는 자연, 즉 인간을 생태계의 일부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자연은 인간의 욕망 충족을 위한 단순한 자료나 도구가 아니며 인간과 함께하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이여 더 나아가 고유한 의미를 지닌 살아 있는

존재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에너지자립마을은 자연과 인간에 대한 순환적 유기체 사상이 함의되어 있다. 자립마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상호의존적이며 인간과 자연계를 '상호 의존적 생성' 또는 '생태적 사슬구조', 즉 생태적 한계를 인식하며 인간과 자연은 평등하다는 인식을 갖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구조변화에 관심을 갖으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과학기술을 이용, 소비생활을 조절하는 것과 더불어 농업중심의 공동체 사회 및 작은 공동체를 이상향으로 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에너지자립마을에는 친환경 과학기술 이용과 자원을 사용한 환경관리주의 환경관이 함의되고 있다. 인간은 자연세계에 대해 순응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대하는 태도보다는 인위적인 작위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해 나 갈 수 있음이 나타났다.

넷째, 에너지자립마을은 환경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자 측면에서 볼 때 민주적인 절차를 중시하는 마을(공동체), 사회적 차원에서 생태교육을 통한 인식전환과 사람과 사람사이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마을구조의 변화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 계몽을 통한 가치관 행동양식의 '인식전환'을 추구하며 자연가치에 대한 종교적 깨달음을 통해 생활방식의 변화를 찾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형성과정 및 장소성이 기반이 된 에너지자립마을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소기반 에너지자립마을에 장소에 따라 다른 친환경속성과 환경관이 나타나거나 일부 측면만이 강조되는 경우가 있어 이것을 환경교육 매체로 활용할 시(時) 주의가 필요다. 또한 학생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논의할 수 있

는 기회를 주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성찰을 통한 장소정체성을 형성하고 바람직한 환경관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한다.

둘째, 장소기반 에너지자립마을을 견학 할 때, 장소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환경속성과 환경관을 조사하고 환경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 했는지를 파악하여 학생들이 견학 시(時) 견학과정자료를 제시해주며 장소기반 에너지자립마을에 대한 전체적인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장(場)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현재 존재하는 에너지마을의 장·단점, 지속가능성 여부를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제시하여 재생에너지의 중요성, 환경인식의 사고전환, 기성세대의 노력과 헌신, 자연과 인간은 하나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주요어 : 에너지자립마을, 공간텍스트, 장소기반, 환경관, 생태중심주의, 인식전환

학 번 : 2007-21725

목 차

Ⅰ. 서론 ····· **1**
1.연구의 필요성 및 질문 ····· 1
2.연구 방법 ····· 3
1)연구의 범위 ····· 3
2)연구 과정 ····· 5
3)자료수집과 분석 ····· 7

Ⅱ. 이론적 배경 ····· **9**
1. 관련 연구 개관 ····· 9
2. 주요 개념 및 이론 ····· 11
1)에너지자립마을 ····· 11
2)학습의 과정 및 배경 ····· 14
3)장소기반 환경교육의 특성 ····· 17

Ⅲ. 장소기반 에너지자립마을의 공간이야기 및 환경관 분석틀 구성 ····· **20**
1. 에너지자립마을의 공간이야기 구성 ····· 20
1) 에너지자립마을의 미학적 접근: 장소성과 서사성 ····· 20
1).1. 장소기반 에너지자립마을의 장소성 ····· 20
1).1.1. 장소의 정의 ····· 20
1).1.2. 에너지자립마을의 장소적 의미와 이미지 ····· 21
1).2. 장소기반 에너지자립마을의 서사성 ····· 23
1).2.1. 서사에 대하여 ····· 23
1).2.2. 에너지자립마을의 서사구조 ····· 24

2) 장소기반 에너지자립마을의 텍스트 의미 ····· 25
2).1. 에너지자립마을의 기호작용 ····· 25
2).2. 에너지자립마을의 텍스트 기능 ····· 26
2).3. 장소기반 에너지자립마을의 텍스트적 의미 ····· 27
2. 환경관 구분 및 분석틀 구성 ····· 30
2.1. 환경관에 대한 논의 ····· 30
2.1.1. 환경관 ····· 30
2.1.2. 환경관 논의 ····· 30
2.1.3. 환경관 구분 ····· 31
1) 인간중심주의(기술중심주의)환경관 ····· 31
(1) 기술만능주의 ····· 32
(2) 환경관리주의 ····· 33
2) 생태중심주의 환경관 ····· 35
(1) 생태합리주의 ····· 36
(2) 생태낭만주의 ····· 38
2.1.4. 환경관 분석틀 구성 ····· 39
1) 환경관 분석을 위한 준거 틀 ····· 39
2) 환경관 분석틀에 따른 공간텍스트 분석을 위한 평가 항목 ····· 41

Ⅳ. 적용 및 분석결과 ····· 45
1. 장소기반 에너지자립마을: 등용마을 ····· 45
1.1.시대에 따른 에너지자립마을: 등용마을의 장소성 ····· 45
1.2.장소기반 등용마을의 서사성 ····· 48
1.3.장소기반 등용마을의 텍스트 기능과 텍스트적 의미 ····· 49
1.3.1. 등용마을 텍스트 기능 ····· 49
1.3.2. 등용마을 텍스트적 의미 ····· 50

1.4. 환경관 분석 ····· 51
2. 장소기반 에너지자립마을: 중금마을 ····· 51
2.1.시대에 따른 에너지자립마을: 중금마을의 장소성 ····· 51
2.2.장소기반 중금마을의 서사성 ····· 56
2.3.장소기반 중금마을의 텍스트 기능과 텍스트적 의미 ····· 57
2.3.1. 중금마을 텍스트 기능 ····· 57
2.3.2. 중금마을 텍스트적 의미 ····· 57
2.4. 환경관 분석 ····· 58
3. 장소기반 에너지자립마을: 월곡마을 ····· 59
3.1.시대에 따른 에너지자립마을: 월곡마을의 장소성 ····· 59
3.2.장소기반 월곡마을의 서사성 ····· 62
3.3.장소기반 월곡마을의 텍스트 기능과 텍스트적 의미 ····· 63
3.3.1.월곡마을 텍스트 기능 ····· 63
3.3.2.월곡마을 텍스트적 의미 ····· 63
3.4. 환경관 분석 ····· 65
4. 장소기반 에너지자립마을: 지평교회 ····· 65
4.1.시대에 따른 에너지자립마을: 지평교회의 장소성 ····· 65
4.2.장소기반 지평교회의 서사성 ····· 68
4.3.장소기반 지평교회의 텍스트 기능과 텍스트적 의미 ····· 69
4.3.1. 지평교회 텍스트 기능 ····· 69
4.3.2. 지평교회 텍스트적 의미 ····· 70
4.4. 환경관 분석 ····· 71
5. 장소기반 에너지자립마을: 십자성마을 ····· 71
5.1.시대에 따른 에너지자립마을: 십자성마을의 장소성 ····· 71
5.2.장소기반 십자성마을의 서사성 ····· 75
5.3.장소기반 십자성마을의 텍스트 기능과 텍스트적 의미 ····· 75

5.3.1. 십자성마을 텍스트 기능 ····· 75
5.3.2. 십자성마을 텍스트적 의미 ····· 76
5.4. 환경관 분석 ····· 77
6. 장소기반 에너지자립마을에 나타난 환경관 분석결과 ····· 77

Ⅴ. 형성 과정 및 환경교육 시사점 ····· 80

Ⅵ. 결론 및 제언 ····· 85

참고문헌 ····· 88

부 록 ····· 94

Abstract ····· 96

표 목 차

〈표 1〉 시대에 따른 에너지자립마을의 장소성 ····· 21
〈표 2〉 텍스트 친환경속성 분석을 위한 평가항목 ····· 23
〈표 3〉 장소기반 에너지자립마을의 텍스트 유형 ····· 29
〈표 4〉 환경관 분석 준거 틀 ····· 40
〈표 5〉 환경관 분석틀에 따른 텍스트 분석을 위한 평가항목 ····· 42
〈표 6〉 장소기반 친환경브랜드 텍스트의 환경관 분석틀 ····· 44
〈표 7〉 범주화된 장소기반 친환경브랜드 텍스트의 환경관 분석틀 ·· 44
〈표 8〉 등용에너지자립마을의 장소성 ····· 45
〈표 9〉 장소기반 등용마을의 텍스트 유형 ····· 50
〈표 10〉 중금에너지자립마을의 장소성 ····· 52
〈표 11〉 장소기반 중금마을의 텍스트 유형 ····· 58
〈표 12〉 월곡에너지자립마을의 장소성 ····· 60
〈표 13〉 장소기반 월곡마을의 텍스트 유형 ····· 64
〈표 14〉 지평에너지자립교회의 장소성 ····· 66
〈표 15〉 장소기반 지평교회의 텍스트 유형 ····· 70
〈표 16〉 십자성에너지자립마을의 장소성 ····· 72
〈표 17〉 장소기반 십자성마을의 텍스트 유형 ····· 76
〈표 18〉 에너지자립마을의 환경관 분석 결과 ····· 79
<표 19> 에너지자립마을의 형성과정 및 장소성 ····· 80

그 림 목 차

〈그림 1〉 역사성에 따른 에너지자립마을의 장소적 이미지 변화 ··· 21
〈그림 2〉 반 다이크의 서사구조 모델 ····· 25
〈그림 3〉 에너지자립마을의 기호작용 ····· 26
〈그림 4〉 역사성에 따른 등용마을의 장소적 이미지 변화 ····· 47
〈그림 5〉 장소기반 등용마을의 서사성 ····· 48
〈그림 6〉 역사성에 따른 중금마을의 장소적 이미지 변화 ····· 55
〈그림 7〉 장소기반 중금마을의 서사성 ····· 56
〈그림 8〉 역사성에 따른 월곡마을의 장소적 이미지 변화 ····· 61
〈그림 9〉 장소기반 월곡마을의 서사성 ····· 62
〈그림 10〉 역사성에 따른 지평교회의 장소적 이미지 변화 ····· 67
〈그림 11〉 장소기반 지평교회의 서사성 ····· 69
〈그림 12〉 역사성에 따른 십자성마을의 장소적 이미지 변화 ····· 73
〈그림 13〉 장소기반 십자성마을의 서사성 ····· 75

<도 표 목차>

<도표 1>등용에너지자립마을 환경성평가의 친환경성 ····· 48
<도표 2>중금에너지자립마을 환경성평가의 친환경성 ····· 56
<도표 3>월곡에너지자립마을 환경성평가의 친환경성 ····· 62
<도표 4>지평에너지자립교회 환경성평가의 친환경성 ····· 68
<도표 5>십자성에너지자립마을 환경성평가의 친환경성 ····· 74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질문

세계 곳곳에서 과도한 편리를 추구하면서 무분별하게 화석연료를 남용하는 현대문명에 경고의 목소리와 함께 에너지문제와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 생활 전반에 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중앙집중식의 에너지공급방식에 따른 비효율성, 사회적 불평등을 제기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분산형 에너지공급방식을 중요한 논의거리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개인이기주의 생각으로 마음껏 에너지를 사용해도 되는가?에 대한 의문들을 갖고 '지구를 구한다'는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들이 지구환경 문제를 삶 속에서 해결하고자 개인, 공동체(마을), 종교, 지방자치단체, 정부단위의 에너지자립을 고민하고 실천한 곳이 '에너지자립마을(공동체)'이다.

'에너지자립마을'을 공간[1)]으로 보았을 때, 공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간으로 사회를 읽을 수 있다. 역으로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을 알기위해서는 공간을 보면 알 수 있다(박서호, 1993).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터로서의 공간은 우리가 설계하는 사회적 삶의 관계나 질서를 그대로 투영한다(조명래, 2013). 그러나 공간은 단순한 사회적인 것의 반영 또는 결과물이 아니라 내·외부자극을 받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람과 자연 등에 경험관계 속에 소통을 하면서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변화를 모색하는 곳이다.

---

1)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에 따르면, 공간은 "1) 아무것도 없는 빈 곳, 2)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범위, 어떤 물질이나 물체가 존재할 수 있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 3)영역이나 세계를 이르는 말, 4)(물리) 물질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장소, 5)(수학) 어떤 집합이나 그 요소 사이 또는 그 부분 집합 사이에 일정한 수학적 구조를 생각할 때 그 집합을 이루는 말, 6)(철학) 시간과 함께 세계를 정립시키는 기본 형식"등으로 정의한다(http://www.korean.go.kr).

이를 통해서 공간과 사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삶이 실재로 구현되어 의미 있는 공간으로 사회화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감옥이란 공간에 24시간 동안 내 몸이 있다면 감시의 눈초리를 받아 내 몸이지만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즉, 어떤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몸과 마음은 긍정적 방향으로 갈수도 부정적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공간에 본질인 것이다.

거리, 마을, 시장, 광장, 박물관, 감옥 등은 사람이 창조하고 꾸민 공간이지만 각 공간의 구성방식과 내용은 물론이고, 담고 있는 의미, 상징하는 색깔과 이미지, 심지어 시간의 요소도 다르다. 이런 속성으로 인해 각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행위자의 행태와 의식은 그 공간의 작동 방식에 맞도록 '틀' 지어진다(이무용, 2005).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자본주의적 제도(정치·경제체제)적 관계로 만들어진 공간을 사유하고 공간을 만들며 일상 공간을 개혁하는 '공간적 실천'의 중심에 있는(Johnston, Gregory and Smith, 1994) 에너지자립마을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람과 자연의 소통으로 구성된 물리적 형상물이면서 관계의 틀을 담은 채 사람들의 의식을 형성하고 규율하는 의미구성체[2)]이다(한국공간환경학회 편, 2000).

다시 말해서, 에너지자립마을은 '자연환경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해서 주체자마다 자연관과 세계관, 윤리관 등에 따라 원칙들을 '처방'으로 내놓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의 올바른 행위 규범과 가치관을 설명하고 근거지음으로써 생태계의 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에 내포된 철학적 사유와 노력들에 담겨진 다양한 에너지자립마을의 의미구성체를 분석하기 위해서, 에너지자립마을 주체자들이 추구하는 마을의 공간이야기를 구성하여 공간텍스트[3)]를 재구성하고 이를 바탕

2) 무형식 교육은 의도된 교육과정 없이 일상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으로, 주변 환경, 가족과 친구에게 배우거나 여행이나 종교 활동에서 배우는 것, 신문이나 텔레비전과 같은 매체나 책에서 배우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Coombs & Ahmed, 1974: 전소영, 2013 재인용). 한편, 환경에 대한 책임 의식과 태도 향상 등은 학교교육보다 삶 속에서의 의미 있는 경험이나 감동, 사람과의 상호작용 같은 무형식(informal) 교육이 더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Palmer, 1998: 김희경, 2011 재인용), 학습자의 삶의 경험의 배경에 따라 학습영역에서 중요하다(Hopwood, 2007).

으로 환경관[4]을 분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주요 질문을 갖는다.

첫째, 장소기반 에너지자립마을에 나타난 환경관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

둘째, 장소기반 에너지자립마을에 나타난 환경관은 주로 무엇이며, 이들은 어떠한 특징을 중심으로 나타나는가?

셋째, '에너지자립마을'은 어떻게 형성되어 유지되는가? 본 논문은 어떤 내·외부 자극 과정을 거쳐 현재의 '에너지자립마을'이 형성되고 유지되며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의미를 탐색하고 환경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2. 연구 방법

1) 연구의 범위

에너지자립을 마을 단위로 추구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사람들의 철학적 사유와 노력이 견학과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고 개인(전북 부안군 중금마을), 공동체(전북 부안군 등용마을, 경기도 부평시 지평교회), 지자체(전북 고창군 월곡마을), 지자체와 주민들의 노력(서울특별시 강동고 천호동 십자성

---

3) 공간텍스트는 '자체적으로 전체로서 인지 가능한 의사소통적 기능을 알려주는 언어기호들의 한정된 연쇄'라고 정의하였다. 즉, 특정한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일련의 기호 연쇄들이 구조적, 주제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이것이 인간에게 의사소통적 기능을 할 때 공간 텍스트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소통할 목적으로 생산한 모든 인공물이다(Brinker, 1983; 김영순, 2011).

4) 환경관(the view of environment)은 지역 과 전 지구적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인간의 세계관, 신념 및 행동양식"을 의미한다(O'Riordon,1981; pepper,1984). 즉, 사회적·문화적으로 구성되어 환경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개인과 사회가 환경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여과로 볼 수 있다.

마을)으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환경, 사람과 사물사이의 소통과 상호작용으로 에너지자립마을의 형성과정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런 관계를 통해서 지속가능성이 높은 에너지자립마을 다섯 곳을 선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첫 번째, 주민들은 지역 환경 문제(전라북도 부안군 방폐장 반대운동)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통해 방폐장 건설을 반대하였고 자발적으로 부안시민발전소를 만든 이 마을을 일차적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두 번째, 전북 의제 21 대안에너지 워크숍(주제: 기후변화, 화석연료 고갈, 장소: 등용에너지자립마을)에서 전기자전거, 태양광발전기, 풍력발전기 제작 교육 참여를 통해 마을의 한 개인의 '의식 전환' 계기로 시작한 중금에너지자립마을은 기후변화, 에너지와 삶이 중요문제로 부각되었고 에너지자립과 공동체복원을 실천하는 마을로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세 번째는 지역 환경 문제(원미산 놀이공원 반대)로 '의식 전환' 계기가 된 부천시 지평교회(공동체)는 부천환경운동센터를 설립했으며 태양광발전소를 교회옥상에 최초로 설치하여 작은 일을 삶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녹색교회[5]로 선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자립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공동체이다.

네 번째는 귀농·귀촌 1번지 월곡마을은 농식품부 시범사업으로 2009년에 선정되어 332억원을 지원받고 주민들과 협의(協議)없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기술협약을 체결하여 에너지 절감시설(100세대)을 설치한 미래형 에너지자립마을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강동구와 십자성마을주민들의 공동노력으로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2012년)'에 선정되었으며 에너지자립을 꾸준히 실천

5) 녹색교회는 녹색세상을 향한 한국교회 "에너지전환"약속이다. 1)하나님이 주신 지구동산을 통해오는 에너지를 필요한 만큼 사용하겠다. 2)태양, 바람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정부가 건강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게 하겠다. 3)현 에너지 사용량을 10%이상 줄이고 교회(마을)절전소를 지으려고 노력하겠다. 4)언제, 어디서나 실내적정온도를 유지하겠다. 5)에너지효율등급을 중요시하면 전기제품을 바르게 사용하여 낭비되는 전력을 줄이겠다. 6)조명사용을 줄이고 가전제품의 플러그 뽑거나 개별스위치멀티탭을 사용하겠다. 7)건물의 에너지효율을 최대한 끌어 올리고 신축사에는 제로에너지하우스를 짓겠다. 8) 제철음식을 먹고, 승용차대신 걷기,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 9)아나바다 운동을 실천하고 일회용사용을 줄이겠다. 10) 에너지탐욕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앙들로 인하여 고통 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겠다(www.greenchrist.org).

하여 강동구 에너지투어코스 중 한 곳으로 선정된 곳이 바로 십자성에너지자립마을이다.

위 사례선정은 의도적으로 표집을 정했다. 의도적 표집은 그렇지 못한 표집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에 맞는 사람이나 장소를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조영달, 2015).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태양에너지, 수력, 바이오매스, 풍력 지열등과 같이 재생 가능한 자연자원으로부터 얻은 에너지)중에서 태양에너지와 풍력,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자립마을들로만 의도적으로 표집을 하였다.

2) 연구 과정

공간 텍스트의 의미와 형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변화하고 비유될 수 있는 '공간의 언어'를 읽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공간의 의미를 구조화하며 창조적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과정이다.

위 논문에서는 '에너지자립마을(공동체)'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서사구조, 기호학적 연구 방법, 미학 등의 인문학적 연구방법론을 활용(오장근, 김영순, 백승국, 2006)하여 공간이야기속의 의미를 알아보고 인간인식 활동인 표상(representation)체계를 바탕으로 이해를 넓혀 나아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공간텍스트를 형성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적용되는 방법론들의 개략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적 체험의 대상으로 공간을 관찰하는 미학적 방법론은 장소기반에 철학적 사유와 미적 체험의 대상인 장소를 사실적으로 관찰한 것이다(김영순, 2011). 미학의 임무가 미적 경험이나 판단의 능력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다면 장소기반에 대한 사유와 미학은 본질과 가치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핵심적 목표가 될 것이다(오장근, 2008). 결국 미적 대상인 장소기반 '에너지자립마을'은 공동체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성찰이며 형식과 기능적인 이해뿐 아니라 표현된 대상을 대표성과 상징성을 지닌 완성된 기능으로써 인간의 의식전환공간을 표현하는데 주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것이다.

둘째, 공간텍스트 방법론은 의미구성체로 공간을 인식하여 다양한 구성체의 의미작용을 연구하는 연구방법론이다. 에너지자립마을인 공간을 의미구성체로 인식하고 공간의 의사소통 및 의미 생성, 분석 절차적 텍스트 유형 분류 모델(Brinker, 1983, 이성만역, 1995)을 적용하여 장소기반 '에너지자립마을(공동체)의 텍스트가 뜻 하는 바를 파악하는데 활용한다. 즉, 1단계 분석에서는 주민들에 의해 인식된 공간텍스트 기능이 규정되며, 나머지 분석단계(2단계에서 5단계)에서는 의사소통 형식, 행위영역 개념, 공간, 인식이 만들어내는 이야기 주제 유형과 주제전개 형식에 맞추어 기술하며 공간의 의미작용을 설명한다. 이러한 텍스트 분석의 절차는 공간텍스트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의미 성분들을 고려함으로써 공간이 말하고자 하는 철학적 사유를 읽을 수 있는 방법론이다.

셋째, 기호학적 방법론은 공간의 상징체계인 분석도구를 이용한다. '기호학'은 인간의 꿈과 욕구를 담고 있는 도구이며, 문화 기호의 영역은 새로운 생각의 언어나 일정한 곳에서 생산된 문화를 기호계의 한 분야로서 본다(Lotman , 1990; Posner, 2003; 오장근, 2008 재인용).

따라서 '기호학'은 시각적 이미지와 영상 언어로 구성된 표층적 기호와 서사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심층적 구조인 문화 체계를 뽑아내는 연구방법론이다. 문화는 사람들의 상징체계와 연관된 것으로, '이야기', 의미', '표현', '지식' 등의 개념을 설명하고 어떻게 한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물질적·정신적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생활양식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백승국 2004).

결국, 문화를 기호들의 조합으로 이해하는 기호학은 문화현상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언어학적 방법론으로 사회 속에 구성된 공간텍스트의 '감춰진' 의미를 찾아내는 효과적인 분석 도구라 할 수 있다(오장근, 2006).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공간텍스트에 나타난 구성요소들을 분석하고 환경관 논의를 바탕으로 분석틀을 구성하여 에너지자립마을에 나타난 환경관을 해석한다. 그리고 '에너지자립마을'의 일상적 삶과 형성 과정 속에서 나타

난 사유와 노력들이 공간에 반영되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근본으로 삼아 사회 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한 '에너지자립마을'의 사회적 의미를 탐색하고 학습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환경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3) 자료수집과 분석

이 연구에서 문헌조사, 이미지 조사, 현장조사 등의 자료수집 방법을 선택했다.

이 연구를 위한 문헌조사, 이미지 조사는 2014년 3월에 진행 했으며 2016년 4월에 현장조사를 하였다, 연구기간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다. 현지자료는 소식지 등 신문, 인터넷, 정기간행물과 홈페이지를 조사하였고 에너지자립마을의 시간적 서사과정을 알기 위해서 많은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려고 노력했다. 현지자료를 통해, 본 논문은 에너지자립마을(등용마을, 중금마을, 월곡마을, 십자성마을, 지평교회)이 갖고 있는 의미, 서사, 이미지 등을 통해 공간이 만들어 내는 의미를 찾기 위해 통계자료에 기초한 계량적 방법이 아닌 문헌조사, 이미지조사에 기초한 질적 연구 방법론을 기호학과 텍스트학, 미학 등의 인문학적 방법론에 활용하여 서사적으로 공간텍스트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현장조사에서 에너지자립마을의 사진을 찍고 담당자를 만나 '에너지자립마을이 형성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라는 단일 질문을 통해 자료를 확인, 체크, 메모하면서 개방적인 면담 방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후에는 공간텍스트를 반복적으로 읽고 의미를 추출해내는 개방코딩을 하였다. 그 후에 코딩 자료를 다시 분석하고 해석하는 절차를 거쳤다(조용환, 2008).

이 연구에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Creswell(2007)이 제시한 질적 연구의 여덟 가지 검증 절차('동료검토', '복합적이고 다양한 자료원', '참여자 검토', '지속적인 참여와 끊임없는 관찰', '풍부하고 상세한 기술', '부정적인 증거나 반증의 증거 사례 분석', '연구자의 편견을 명확히 하

기’, ‘외부감사’) 중에서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선택한 세 가지 검증 절차는 ‘동료검토’, ‘참여자 검토’ 그리고 ‘풍부하고 상세한 기술’ 등을 통해 자료를 구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이야기의 정확성과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관련 연구 개관

지금까지 환경 공익광고(전소영, 2013), 초등국어교과서(맹은혜, 2011), 환경동화(박우연, 2005), 세종실록(안정석, 2010) 등에 있는 내용물인 텍스트를 통해 시대적 변천과 환경에 관한 철학적 사유를 읽어 내기위해 환경적 생각을 구성하고 있는 환경관을 분석했다. 그러나 공간 텍스트는 언어 텍스트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김영순, 2011).

첫 번째는 생산되는 방식인데, 언어 텍스트는 순수하게 특정한 저자에 의해 생산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공간이라는 것은 원래 존재하는 기존의 공간에 또 다른 생산자가 써내려가며, 공간의 향유자에 의해 변형이 일어나기도 한다. 즉, 다른 텍스트에 비해 다시 쓰기의 가능성이 크게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읽히는 방식인데, 언어 텍스트는 주로 시각이나 청각에 의존하여 개념적인 의미들을 읽어내는 것인데 반해, 공간은 모든 신체를 사용하여 경험함으로써 읽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간 텍스트의 의미와 형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가변적이고 은유적이라 할 수 있는 '공간의 언어'를 읽어내기 위한 학자들의 시도는, 끊임없이 생산되고 누적되는 공간의 의미를 구조화하기 위해 지속되어 왔다.

이 텍스트라는 단어의 사용이 일관성이 있지는 않지만, '시간의 흐름'의 자질로서 이해하면 될 것이다(김영순, 2011). 시간적 흐름의 현상은 텍스트가 개별적인 기호들의 집합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가지거나 특정한 주제를 향해 수렴될 수 있는 기호들의 배치로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텍스트언어학 연구의 흐름에 있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으로 텍스트의 정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클라우스 브링커, 이성만 역, 1995).

첫 번째는 60년대 중반 나타난 언어체계 지향적 흐름으로서 단어와 문장 형성 및 텍스트 형성도 언어의 규칙체계를 통해 통제되고 언어 체계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규칙성에 근거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텍스트를 '문장들의 응집적인 이어짐'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이때 텍스트는 순수 문법적 관점에서 의미적인 연결을 가진 문장들로서 파악된다. 그러나 이런 정의는 텍스트를 언어적 구조 속에 고립시켜 정적인 대상으로 다룬다는 비판 하에 두 번째 흐름인 1970년 대 초 나타난 의사소통 지향적 관점이다. 이 관점은 텍스트가 의사소통 상황에 삽입되어 있으며, 화자 및 저자와 청자 및 독자가 언제나 사회적, 상황적 인 전제와 관계를 이용하여 서술하는 의사소통과정 안에 있다는 점을 중시하며 텍스트는 문법적으로 연결된 문장 이어짐이 아니라 복합적인 언어행위이며, 화자 및 저자는 이 언어 행위를 이용하여 청자 및 독자들의 일정한 소통관계를 산출해 내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의사소통 지향적인 관점은 텍스트가 소통적 상황 속에서 설정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어떠한 내포적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텍스트언어학의 두 가지 흐름은 텍스트의 구조와 내포적 의미를 포함하는 보충적 관점이다. 브링커(Brinker, 1983, 이성만 역, 1995)는 이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응집적이고, 전체로서 인지 가능한 의사소통적 기능을 알려주는 언어기호들의 한정된 이어짐'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기호로 이루어진 모든 것은 텍스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다양한 기호들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은 텍스트로서 전제조건을 갖추고 있다. 단, 이러한 기호들이 무의미하게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체로서 의미작용을 하기위해서는 언어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응집성과 소통성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해, 특정한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일련의 기호 이어짐이 구조적, 주제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이것이 인간에게 의사소통적 기능을 할 때 공간 텍스트는 성립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영순·임지혜(2008)의 연구는 '춘천'을 여가적 자질을 포함하고 있는 공간 텍스트인 '여가도시'로 의미화하는데 있으며, 나아가 여가 공간 춘천을 위하여 '스토리가 있는' 도시를 넘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도시 즉 공간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 방문객들이 유혹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의 상징성을 찾고 유용하게 만드는 것, 따라서 춘천을 경험한 방문객들의 감동이 다른 이들을 향한 담론을 만들어

소통의 공간을 확장하여 다시금 텍스트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간의 스토리텔링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그리고 오장근(2008)의 연구는 도시 공간 '청계천'이 의미 구조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청계천'의 서사구조와 표상체계에 텍스트의 의미를 밝혀내고 도시언어의 표상체계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통해 어떻게 도시 공간이 의미를 구축하는지, 또는 어떻게 도시 공간이 공통의 문화적 이해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내러티브 구조를 만들어 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도시들의 문화 고유성과 창조성을 이해 시켜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한국 도시들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체계적이고 독창적인 내러티브 전략을 설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물들은 공간텍스트로서 에너지자립마을의 정체성을 밝히고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에너지자립마을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주요 개념 및 이론

위 논문에서는 근본이 될 수 있는 주요한 개념과 이론을 제시한다. 에너지자립마을의 고유성과 창조성을 이해하기 위해 에너지자립마을 사례를 바탕으로 에너지자립마을을 정의하며 공동체의 형성 과정을 알기 위해 학습 배경에 대한 이론을 살펴본다.

1) 에너지자립마을

한국의 전력 공급체계는 대형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수도권은 전국 전력 소비량의 40% 정도를 소비하는데, 소비하는 전력의 대부분은 충청남도 서산, 보령, 당진 주변의 대규모 화력발전소와 울진, 월성 등 동해안의 핵발전소에서 생산한 것이다. 이 지역

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곳곳에 송전탑이 세워졌으며 늘어 날 전망이다. 이 같은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 방식은 수요 관리에 실패할 확률이 높고, 전력을 생산하고 송전하는 과정에서 사회·환경적 불평등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분열과 자연환경 훼손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중앙집중식 에너지 방식을 전환하기 위해서 지역 에너지 방식으로 만들어가야 한다(윤순진, 2003). 지역에너지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을 기반으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하며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에너지 생산과 소비자의 거리를 가능(可能)한 친밀하게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에너지 정책의 비전은 지역에너지 자립이다.

이 정책적 비전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이 마을이다. 에너지자립마을 단위를 결정하기 위해 국내에서 발간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마을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환경부, 2011).

1) ‘마을’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으로, 정의되고 있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마을’은 씨족 단위와 공동체로 분간한 가족이 근거리에 살면서 이루지게 되며, 최하위 행정단위 ‘리’를 구성하는 지역 단위를 이룬다.
2) ‘마을’을 ‘인간이 지표면을 점유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1차적인 모둠살이’ 혹은 ‘일정한 지역 위에 분포하는 개인, 가족, 집단 및 제도’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으나, 언급하는 목적이나 학문 분야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3) ‘마을’은 공간적 차원에서 일정한 영역을 함께하는 지역성(locality)과 사회·문화적 차원 에서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ng)에 기초한 집단적 정체성(identity), 구조적 차원에서 유기체적 속성(organism)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의 ‘마을’은 전통적으로 한국농촌의 사회·문화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공동생활권의 전형적인 지역단위라 할 수 있다.
4) ‘마을’은 자치행정의 지역단위와 일치되고 있으며, ‘경제적 자족성’과 ‘정치적 자율성’ 및 ‘사회적 상호의존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3)과 4)번에 마을의미에 근거한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마을) 단위별 환경계획의 범위 안에서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하여 쓸 수 있고, 자원을 순환 이용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생태학적 단위로 접근해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지역사회 안에서 최대한 생산하여 공급하고, 지역사회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그 안에서 최대한 처리를 하되 최소한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물질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김정욱, 2015).

그리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발생된 탄소를 최대한 흡수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자립마을은 소극적 관점에서는 마을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전체 에너지를 마을에서 생산하여 소비하는 마을을 의미하며 적극적 관점에서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증대,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마을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족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지역에너지를 확보하고, 에너지 판매 및 관광자원과의 연계 등을 통해 경제적 수입을 창출하는 마을이다(전북발전연구원, 2009).

종합하면, 마을 단위의 에너지자립이란 마을에서 직접 생산한 에너지 총량의 한도 내에서 에너지를 소비함으로써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에너지를 둘러싼 환경, 사회적 외부의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지역사회에서 부담을 줄여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고, 에너지문제에 사람과 사람, 사람과 인간, 자연환경사이의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주민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 스스로 에너지소비에 관한 통제력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도 에너지의 생산 활동에 지역주민이 고용되어 생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생산에 투입된 비용이 지역사회 안에서 순환되고 물질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에너지자립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2) 학습의 과정 및 배경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자립마을이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 지속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연구 질문으로 한다. 에너지자립마을이 추구하는 목표를 향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람과 자연사이의 의사소통을 통해 형성하는 과정과 지속적인 변화의 결과물인 에너지자립마을의 공간이야기는 학습 또는 학습 과정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학습은 그 환경 사이의 소통적 과정과 학습 결과를 얻어내는 심리적 내부 과정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통합적 과정이며(Illeris, 2002), 지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며 경험의 변화(행동, 생각, 감정)가 일어나는 과정이다(Kolb, 1984).

학습에 대한 정의에서 이해했듯이 존 듀이(Dewey, 1952)는 경험을 통한 삶이 바뀌는 과정으로서 이해하고 지속성을 통해 삶이 바뀌는 과정으로 교육을 이해할 수 있고 성장하는 학습자의 경험을 교육적 경험으로 볼 수 있으며 일상적 삶에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람과 자연 등의 관계적 경험을 바탕으로 소통의 원리가 작동함을 주장했다. 이는 개인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경험이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험은 환경교육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이에 따라 일상적 삶의 공간에 의미를 부여한 장소경험(권영락, 2005) 또한 중요하다. 환경교육은 환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거나 환경행동의 기술을 익히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의 환경관, 삶을 변화시켜 인간 삶 전체를 변화하게끔 만들 것이다. 따라서 삶을 변화시키는 장소경험은 환경교육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듯 학습은 경험을 통해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고, 사람의 의미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을 '전환학습(transformative learning)'이라 말한다. 전환학습을 체계화한 메지로우(Mezirow, 1994)는 전환학습의 의미를 결정적인 사건 또는 경험을 통해 자신이 갖고 있던 기존의 사고에 의문을 제기하고, 반성을 통해 기존의 의미 관점을 훨씬 더 포괄적, 개방적, 통합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전환이란 개인의 관점을 암묵적으로 규정하고, 생각, 신념, 행위에 영향을 주는 구조인 '참조의 틀(frame of reference)'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인간이 현상을 인식하는 습관, 즉 의미단위(meaning scheme)와 더 높은 단계의 신념이나 가치관, 세계관을 구성하는 의미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의미구조는 의미단위와 의미관점으로 구성된 것으로 자신이 바라보는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틀이 되는데, 삶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의미구조에 한계가 있음을 깨달으며 비판적 관점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틀은 천천히 전환되어 간다. 비판과 반성을 통해 전환된 관점은 앞선 인식보다 포괄적, 통합적인 변하를 꾀해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전환학습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Mezirow, 1994).

1) 일상적 삶 전체를 뒤흔들만한 혼란스런 사건 계기: 자식이나 배우자의 죽음, 이혼, 심각한 병, 해고, 전쟁 등
2) 죄책감, 수치심과 같은 감정에 대한 자기 성찰하기
3) 일상적 삶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하기
4) 자신의 고통과 인식전환의 과정을 타인도 비슷하게 겪는다는 것을 인식하기
5) 새로운 역할, 관계, 행동에 대한 대안 찾기
6) 구체적인 행동 계획 세우기
7)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 습득하기
8) 새로운 역할 시도해 보기
9) 기존 관계를 재조정하거나 새로운 관계로 조정하도록 노력하기
10) 새로운 역할과 관계에 대한 역량과 자신감 세우기
11) 일상적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다시 만들기

틀(frame) 전환학습에서 중요한 요소는 경험과 비판적 반성, 발달이다. 경험은 전환학습의 출발 지점이고 비판적 반성은 경험을 실제 학습으로 전환하는 요소이며, 발달은 전환학습의 결과이다. 이를 바탕으로, 메지로우(1994)는 전환학습을 유도하기 위한 학습 과정으로 1) 기존 관점 정교화하

기 2) 새로운 관점 세우기 3) 관점 전환하기 4) 편견에 대한 비판적 반성을 4 단계 학습과정으로 제안 했으며 더불어 담화와 비판적 반성을 중요하게 간주하여 교육을 통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메지로우(1994)의 전환학습은 학습자가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사회의 제도와 체계를 바꾸기 위해 집단적인 사회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가 충분하다. 또한 전환학습에 대한 대안적 이론인 지구적 관점(planetary view)은 우주, 지구, 자연 환경, 인간 공동체, 개인 세계 사이의 상호연관성을 인식하여 대상을 인간에 한정시키지 않고 인간과 연결되는 물리 세계까지 확장시키고 있으며 전환학습을 통해서 전체 시스템을 재구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Taylor, 2008).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등장한 비전전환(visionary transformative)교육은 발달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지구 공동체, 우주의 창조적인 진화 과정을 포함하는 입장으로, 배우는 사람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품성과 인격을 발달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O'Sullivan, 2002).

그러나 메지로우의 전환학습 이론은 맥락에 대한 무관심과 이성에 의존한 의미 만들기 과정이 감정, 관계, 직관과 같은 학습 영역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성인학습 분야에서는 기여를 했다(박경호, 2009). 또한 학습의 발생을 일상적 삶의 경험에서 찾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험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으로 보고, 비판적 가치를 학습요소로 보았다는 점에서 학습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의미 있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학습을 이해하려면, 과정뿐 아니라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맥락은 학습자가 갖고 있는 내부 요소와 둘러싸고 있는 인간, 자연환경, 학습자의 경험 요소 등등 이 모든 것의 관계에서 상호작용을 생각하는 것을 뜻한다. 즉, 학습은 제한된 조건 하에서 자극에 대한 고정된 반응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복잡한 환경과 맥락 속에서의 작용으로 보아야 한다. 학습은 우리 사회의 삶 속에서 발생한다는 관점(Jarvis, 2006)과 학습자와 인간·자연환경 사이의 소통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과정이라는 관점(Illeris, 2002)으로 학습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은 일상적 삶의 관점에서 살펴야 하며, 삶이 경험의 중요한 시발점이 되어 반성과 틀(frame)의 전환과정이 학습되어야 한다. 또한 학습은 학습자의 맥락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학습자의 내부적 요소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관계를 통해 발생한 개인의 인식전환이 공동체의 인식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

3) 장소기반 환경교육의 특성

인간의 삶과 환경의 밀접성은 장소기반 교육(Place-based)이론을 도출시켰다. 장소기반 교육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 장소의 자연은 무엇인가? 와 같은 단순한 기초적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질문 속에서 우리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 연속체(continuum)의 일부로 스스로의 위치를 인식하게 된다. 장소기반 교육에서 학습자는 과거의 수동적인 관찰자의 입장이 아니라 환경에 관한 적극적인 책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행동자의 입장이다. 이전의 학교와 다른 교육기관이 해 오지 못한 이러한 교육의 역할을 1990 년대 초반에 Orion Society는 장소기반 교육으로 이름 지었다. 장소기반 교육은 지역에 대한 학습으로 개념화되며, 자신의 근원(homeground)을 통합하여 인간과 장소를 이어준다(Sobel, 2004). 이러한 장소에 대한 반복적인 만남과 연관(association)을 통해 우리의 추억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았다(Relph, 1985). 따라서 추억이 장소에 대한 장소감을 형성하고 장소감은 장소에 대한 소속감이나 애착과 같은 정서적 유대를 나타내며 자신이 자연이나 지구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느끼는 생태적 자아(ecological self)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권영락, 2005). 여기서 장소감은 개인과 장소를 연관 지어 생각하거나 행동으로 형성되어지며 개인과 공동체에 정체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환경교육계의 동향이 장소기반으로 이동하는 데에는(Semken &Brandt, 2010) 이전의 환경교육에서 다루어졌던 기후변화의 추상적 환경 개념이 학습자의 지역성에 관한 장소감 형성과 지역 차원(local level)에서의 실질적

행동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환경교육계의 동향이 장소기반으로 이동하는 계기가 되었다(Eijck, 2010; 권현진, 2012 재인용). 환경교육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도구적 목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치관, 세계관의 변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연과 합일 할 수 있는 장소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권영락, 2005).

장소기반 교육은 지역사회에서 생겨나는 환경 현상과 이슈 등 학습에 대한 이해와 환경감수성을 통한 친환경적 행동 실천을 지향하려는 교육적 시도이다. 또한 인간의 감각, 자연·문화적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한 장소감을 형성하여 장소를 기초로 하는 환경윤리, 환경보호, 생태 통합성, 문화의 지속가능성 등에 관하여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Semken & Brandt, 2010).

환경은 "지금. 여기(now-here)"라고 하는 특정 시점의 상황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온 지금과, 지금이 만들어낼 미래를 포함한다(남상준, 1995). 즉, '지금', '여기'. '이것'의 학습자의 삶이 일어나는 장소, 즉 에너지문제에 대응·적응하기 위해 지역, 도시를 기반으로 하여 지금의 환경관이 반영된 에너지자립마을은 시·공간적으로 확대된 삶 전체에 행동의 실천과 '환경의식'이 상호작용을 할 것이다. 따라서 장소는 인간의 경험과 의도가 발현된 '장소'이며 개인과 공동체, 자연환경과 인간환경사이의 만남이 드러나는 '장소'인 동시에 인간의 역사적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곳으로써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이해가 나타나는 의미로 채워진 공간이다.

장소에 대한 교육적 가치를 살펴보면, 환경문제로 발생되는 변화에 인간이 대응·적응하기 위해 간학문적 학습은 반드시 필요하다(Orr, 1992). 장소의 교육적 가치를 환경 교육적 가치로 바꾸어 보면, 장소의 환경 교육적 의미는 '일상성', '연관성', '현장성' 측면에서 볼 수 있다(남상준, 1995; 권영락, 2005).

첫째, 일상성은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에서부터 환경교육이 시작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바로 장소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말한다. 장소는 경험이 일어난

장(place)으로 경험을 가진 맥락적 차원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장소를 바탕으로 한 교육을 통해 영향을 받은 경험을 이해하고, 학습자의 사회적, 공간적 맥락과 관련되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연관성은 학습자 자신과 자연 또는 지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즉, 수평적 의미에서 장소는 경험적 유대를 통해서 자신과 공동체, 자연 과 지구가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수직적 의미에서 장소는 과거 경험축적에 새로운 사건들이 부가되어 변형된 의미와 가치를 형성한다.

셋째, 현장성은 인간환경이 자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소임을 뜻한다.

요약 하면, 변화하는 장소는 자연, 인간환경 등이 인간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의미나 가치가 반영된 장(place)인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가치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장소는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를 통해서 환경교육의 원칙인 통합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또한 장소는 '체험의 장'으로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장소가 담고 있는 현상들이 주민들에게 감정이입이 될 수 있으며(초등사회과 교사용 지도서, 2010)환경교육의 목표는 감수성, 흥미, 호기심을 가지고 환경을 경험하며 일상생활에서의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적 능력을 배양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최석진 외, 1999)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가진다.

Ⅲ. 장소기반 에너지자립마을의 공간 이야기 및 환경관 분석틀 구성

1. 에너지자립마을의 공간이야기 구성

1). 에너지자립마을의 미학적 접근: 장소성과 서사성

1).1. 장소기반 에너지자립마을의 장소성

1).1.1. 장소의 정의

장소는 특정한 공간적 규모로 존재하는 물리적 실체인 동시에 인간행위의 결과물이 반영된 공간적 실체이며 인간 활동의 상징적 대상이다. 공간이 추상적, 물리적, 기능적 속성을 지니는 반면에 장소는 구체적, 해석적, 미학적 속성을 지닌다(이무용, 2006).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여 그 곳을 장소로 인식하게 된다. 인간의 경험을 통해 미지의 공간이 장소로 전환되고, 추상공간이 의미로 가득찬 구체적 장소가 되며, 의미가 없던 물리적 공간이 친밀한 장소로 여겨져 장소성이 형성되는 것이다(이무영, 2005).

따라서 장소는 물리적 공간 환경(지리적 실체로서 장소)과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및 그들의 사회경제적 관계를 형성(입지적 장소)하고, 사람과 인간, 자연환경간의 오랜 소통 속에서 형성된 공유가치, 정서, 상징, 의미를 보유(문화적 실체로서 장소)한 사람(지방정부, 기관, 기업, 주민, 개인)들이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활동공간을 계획하고 가치를 부여한다. 주체자들은 만족과 내재적인 목표에 호응하여 성장, 발전 할 수 있는 곳으로 장소를 고유성과 역사성, 정체성, 창조성을 띤 '전체적 실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인, 1991; 이석환, 황기원, 1997; 김태선, 1998;권영락, 2005).

1).1.2. 에너지자립마을의 장소적 의미와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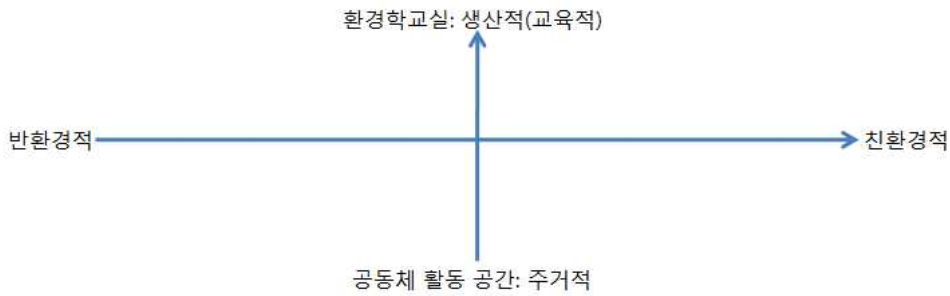
에너지자립마을의 장소성은 물리적 공간인 의미 형성과 관련성이 있다. 에너지자립마을의 공간을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장소적 의미와 이미지를 생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표 1>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에너지자립마을의 장소성을 정리한 것이다.

<표 1>시대에 따른 에너지자립마을의 장소성

시대	장소적 의미 와 형성 과정

개발 위주, 에너지 소비 중심, 사람 중심의 기능적 마을 이미지에서 에너지 생산. 일상생활 소비 습관 변화, 생태교육 등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공생적 에너지자립 이미지로서 전환하려는 곳이 에너지자립마을이다. 과거(전통), 현재(문화), 미래(자연)이라는 3개의 시간 축으로 에너지자립마을은 에너지자립의 상징적 공간으로 친환경적, 교육적, 역사적, 문화적, 미래지향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역사성에 순응한 에너지자립마을 공간은 환경성의 축(친환경/반환경성)과 주거성의 축(주거적 공간/에너지환경학교실)으로 장소의 이미지 변화를 도식화 하면 아래<그림 1>과 같다.



<그림 1>역사성에 따른 에너지자립마을의 장소적 이미지 변화

(출처: 오장근, 2008;저자수정)

이 도식에서 친환경성은 지속·공간 디자인측면에서 본 에너지자립마을의 환경속성은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한 디자인은 환경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 외에 경제적, 사회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환경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과 제도를 통해 인간과 환경 사이의 작용하는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속가능성을 창출하는 것이며 절약(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재생(Regeneration), 재충전(Refill)의 다섯 가지 요소의 특성(이경아, 2007; 김진경, 2013)과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주민들의 환경에 관한 철학적 생각과 노력들이 반영되어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지속·공간 디자인은 환경과 미래를 위한 사회혁신과 변화를 이끌어가는 확장한 개념으로서, 친화경적 요소는 사회적 요소, 경제적 요소, 생태적 요소, 문화적 요소로 분류해 볼 수 있으며 아래와 같다(임채홍,2011).

첫째, 사회적 요소로써 친환경을 유도할 수 있는 사회적 압력을 적절한가라는 요소이며 친환경적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 요소는 친환경적 행위에 대한 결과로써 효율성과 경제적 이익을 보상해 줄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셋째, 생태적 요소는 자원의 절약이나 순환에 있어서 친환경적 기여를 하고 있어야 한다.

넷째, 문화적 요소는 경험을 통해 친환경적인 행동이나 의식이 사회적 기준으로써 확산되고 문화적 현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문화적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성 분석을 위한 평가항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텍스트 친환경속성 분석을 위한 평가항목

분석 요소	공간텍스트 친환경속성 분석을 위한 평가항목
1.사회적 요소	①친환경적 참여는 가능한가? ②적절한 친환경적 사회적 압력은 가능한가? :친환경 참여나 사회적 압력은 서비스를 경험함으로써 얻게 되는 사회적 압력으로 인한 사회구성원으로써의 동질성 획득과 자발적 참여를 의미.
2.경제적 요소	①친환경성으로 경제적 보상이 가능한가? ②사회적 비용의 절감이 가능한가? :서비스를 통하여 개인이나 사회의 경제적 가치를 의미.
3.생태적 요소	①자원이 절약(형태의 단순성, 소재의 순수성, 모듈화)이 가능한가? ②에너지 절약(생산, 물류, 사용에너지)이 가능한가? ③자원의 순환(5R)이 가능한가? :서비스를 만들고 소비하는데 들어가는 자원과 에너지의 소모를 의미.
4.문화적 요소	①친환경적 행동유발이 가능한가? ②친환경적 패러다임의 제시가 가능한가? : 친환경적인 생활방식이나 문화적인 행동양식으로 정착할 수 있는가라는 의미.

(출처: 이경아, 2007; 임채홍, 2011;김진경, 2013 등의 논의를 참고하여 재구성)

1).2. 장소기반 에너지자립마을의 서사성

1).2.1. 서사에 대하여

서사는 ‘실제적, 허구적 사건들과 상황들을 시간적 연속으로 표현한 것’(Prince 1982), 또는 ‘시간과 공간에서 인과관계로 엮어진 사건’(Lacey 2000)으로 정의된다(오장근, 2008 재인용). 종합하면, 서사는 ‘일정한 시간의 연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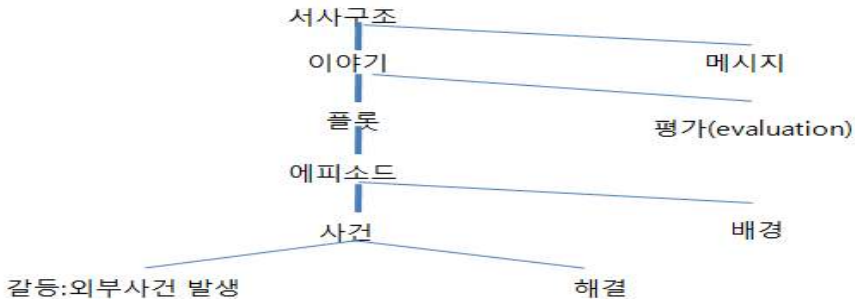
서사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스토리(story)’와 ‘풀롯(plot)’이다. 스토리

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가를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인데 반해 플롯은 외적인 동시에 심리적인 것으로서 사건의 인과관계를 강조한 서사이다. 예를 들어 '부안군 주민들은 방폐장을 겪었다'는 서사가 아니다. 그런데 '부안군 주민들은 방폐장을 겪은 후,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에너지자립마을을 이루었다'는 이야기적 서사이고 '부안군 등용마을 주민들은 방폐장 반대운동과정에서 다른 지역 주민들의 비난과 국가정책 대립에 맞서 마을주민들이 합심하여 자발적 에너지자립마을을 만들어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에너지자립 환경학교실이 되었다'는 플롯적인 서사이다. 따라서 플롯은 스토리에 비해 보다 발전한 형태의 서사라 할 수 있다.

언어학적 서사의 정의를 기반으로, 장소기반 '에너지자립마을'의 서사는 '에너지자립마을의 장소성 인식과 관련된 사건의 연쇄를 인과관계 또는 시간의 연속으로 구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서사구조 분석법'은 에너지자립마을의 장소성 인식 구조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도구이며 나아가 공간이미지 연구를 위한 방법론으로 사용될 수 있다.

1).2.2. 에너지자립마을의 서사구조

에너지자립마을의 서사구조를 연구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론은 반다이크(van Dijk, 1981)의 서사구조 모델이다(오장근, 2008 재인용). 이 모델은 서사의 구성요소를 단순히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이의 관계와 위계구조를 밝히는 것이 특징이며, 논문에서 장소기반 '에너지자립마을'이 갖고 있는 서사성을 이해하는데 관련된 사건들의 의미적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Van Dijk(1981)의 서사구조 모델을 도식화 하면 다음<그림 2>와 같다.



<그림 2> 반 다이크의 서사구조 모델

(출처: 오장근, 2008;저자수정)

반 다이크 모델은 사건을 에피소드의 핵심적인 특성으로 규정하였다. 에너지자립마을의 경우 각 에피소드시기에 따라 주어지는 특징적인 장소적 속성으로 규정된다. 이때 시기별 장소성은 일정한 갈등과 정책적 해결 방안으로 구성되어 새로운 스토리로의 의미적 변천을 겪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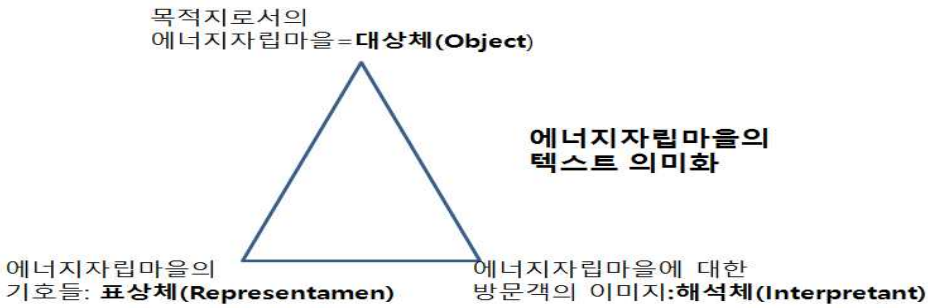
2) 장소기반 에너지자립마을의 텍스트 의미

2).1. 에너지자립마을의 기호작용

본 논문에 있어서 공간은 에너지자립마을을 구성하는 다양한 표상들의 의미구성체, 즉 공간텍스트이다. 표상은 의미를 생산하고 교환한다는 면에서 매체이며, 의미는 언어나 이미지와 같은 표상에 대한 공유된 접근을 통해 소통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자립마을 공간의 표상은 의미작용에서 가장 중심적이며, 에너지자립마을의 문화는 가치와 의미의 중요한 보관소, 즉 환경학교실로서 여겨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에너지자립마을 공간을 텍스트로 설명하는 텍스학적 관점은 에너지자립마을을 물리적 실체가 아닌 다양한 언어와 이미지의 표상들에 의해 공유되고 인식될 수 있는 텍스트적 의미를 전달하는 사회·문화적 매체이자 장소적 의미 형성체로 여겨질 수 있다. 다음은 장소기반 에너지자립마을이 어떻게 텍스트적 의미를 획득하는지를 Pierce의 기호작용모델을 텍스트 '에

너지자립마을’ 에 적용하면 <그림 3>과 같다(오장근, 2008 ;김영순, 2011).



<그림 3>에너지자립마을의 기호작용

(출처: 오장근, 2008; 김영순, 2011)

즉, 언어나 이미지(표상체)의 결합으로 물리적 공간인 에너지자립마을(대상체)을 재현할 때 기호 사용자에게 생각나는 개념이 결합됨으로써 에너지자립마을의 텍스트 의미화는 수행되며, 이러한 인식은 다음 상황에서 새로운 표상체를 획득하게 됨으로써 무한한 텍스트적 의미 확장이 나아가게 된다. 다음 단계로 이러한 텍스트적 관점을 기준으로 에너지자립마을이 만들어 내는 의미와 기능을 알아보려고 한다.

2).2 에너지자립마을 텍스트 기능

공간텍스트로서 에너지자립마을은 다양한 언론, 홍보, 연구 자료 속 에너지자립마을의 개념과 구성요소들, 그리고 에너지자립마을이 둘러싸고 있는 인공, 자연환경과 공간 속의 주민들 및 이들의 관점, 행동, 이미지 등이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소통을 통해 얻어진 장소적 의미 형성체이다. 이러한 텍스트 ‘에너지자립마을’이 사회적 매체로서 의사소통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생산자와 텍스트수용자의 참여가 요구되며, 생산자와 수용자와의 소통을 통해 수행하는 텍스트 기능은 4가지로 볼 수 있다(오장근 외, 2006).

첫 번째, 텍스트 생산자가 전략적 차원에서 텍스트와 관계하는 영역에서 역할은 ‘제보적 기능’이다. 에너지자립마을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온실 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발생된 탄소를 최대한 흡수하기 위한 것이다. 즉, 에너지자립마을은 소극적 관점에서는 마을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전체 에너지를 마을에서 생산하여 소비하는 마을을 의미하고 적극적 관점에서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증대,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마을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족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지역에너지를 확보, 에너지 판매, 쓰레기 분리수거, 그리고 에너지, 생태교육 통해 전 지구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텍스트 기능으로 이해된다.

두 번째, 텍스트 수용자와 텍스트 간의 관계가 설정되는 수용적 차원에서 형성되는데, 이 영역에서 수행되는 텍스트 ‘에너지자립마을’의 기능은 ‘접촉적 기능’이다. 에너지자립마을 주민들의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증대,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마을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족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지역에너지를 확보, 에너지 판매 그리고 에너지, 생태교육 등 에너지자립공간을 공급하여 텍스트 수용자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세 번째, 텍스트 생산자와 수용자 간의 관계에서 이해될 수 있는 해석적 차원으로 수행되는데, 여기서 텍스트 기능은 ‘호소적 기능’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에너지자립마을의 역사적 의미와 변화과정을 통해서, 비환경적이고 에너지 소비였던 에너지자립마을이 주민들의 친환경적 노력들과 에너지 생산을 통해서 에너지자립마을이 지녔던 이미지를 문화적, 친환경적, 공익적, 대표적, 생태적 등의 이미지로 인식되도록 설득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네 번째, 텍스트 자체보다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파생되는 ‘상징적 의미 기능’이다. 즉, 텍스트 수용자에 의해 인식된 텍스트가 매개가 되어 재생산의 영역으로, 확장된 소통의 차원에서 수행되는 상징적 기능으로 여겨질 수 있다.

2).3. 장소기반 에너지자립마을의 텍스트적 의미

공간텍스트로서 에너지자립마을의 유형적 특징과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

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브링커(1983)에 의해 제안된 텍스트 유형 분석 모델에 적용하여 텍스트 유형 분석을 다섯 가지의 분류기준에 따라 진행한다(이성만 역, 1995).

1단계: 공간텍스트 기능 서술

공간텍스트의 기능을 확정하고 기술하는 1단계는 유형분류를 위한 기본 기준이 되어, 방문자는 주어진 공간텍스트에 대한 최초의 기대가 가능하다. 공간텍스트 '에너지자립마을'의 지배적 기능은 상징적 기능이다. 이는 공간텍스트 생산자(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람과 인간, 자연환경의 소통)가 에너지자립마을을 에너지자립의 대표적 장소로 인식되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2단계: 의사소통 형태와 행위 영역 기술

공간텍스트 '에너지자립마을'을 통한 의사소통의 형태는 공간텍스트 생산자의 의도만이 실현되고 있다. 즉 방문한 시민들에 의한 생산적 에너지자립마을 읽기는 가능(교육) 혹은 불가능하다. 또한 에너지자립마을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열린 공간으로서, 에너지자립마을의 소통 영역은 공적 영역, 공공의 영역, 사적 영역에 속한다.

3단계: 텍스트 주제의 시제와 주제 전개 방향 설정

에너지자립마을이라는 공간텍스트의 주제는 서사분석으로 통해, '전시공간'으로 고정될 수 있다. 에너지자립마을의 주제는 공간텍스트 생산자의 의도가 올바르게 전달되어져야 하는 공간텍스트 생산자 중심의 주제 전개 유형으로 설정되며, 주제 전개의 시제는 고정되지 않는 채 폭 넓게 사용된다.

4단계: 기본적인 주제 전개 형식과 실현 방식

공간텍스트 에너지자립마을의 토대를 이루는 것은 설명, 참여형 주제 전개이다. 에너지자립마을 구성하는 주요한 의미 요소들이 공간에 비 조직·조직적으로 실현되어있다.

5단계: 텍스트 에너지자립마을을 구성하는 구체적(언어적/비언어적)내용 서술

공간텍스트 에너지자립마을을 구성하는 구체적 내용들은 시간축으로 구분되며 구간은 중점경관을 포함하도록 구성한다. 구체적 내용의 파악을 통

해 공간텍스트 에너지자립마을이 수용자(주민들, 방문자들)에게 전달하고 자하는 텍스트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

위에서 설명한 브링커의 절차적 텍스트 유형 모델을 요약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장소기반 에너지자립마을의 텍스트 유형

<table>
<tr><td colspan="6">장소기반 에너지자립마을의 텍스트 유형</td></tr>
<tr><td>절차 1</td><td>텍스트 기능</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5">절차 2</td><td rowspan="3">의사소통 형식</td><td>의사소통 방향</td><td colspan="3"></td></tr>
<tr><td>의사소통 접촉</td><td colspan="3"></td></tr>
<tr><td>언어적 /비언어적</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행위영역</td><td>공적 영역</td><td>공공적 영역</td><td colspan="2">사적 영역</td></tr>
<tr><td></td><td></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4">절차 3</td><td rowspan="2">텍스트 시제</td><td>과거형주제</td><td>현재형주제</td><td>미래형주제</td><td>무시제 주제</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텍스트 주제</td><td>생산자 중심</td><td>수용자 중심</td><td colspan="2">파트너외적</td></tr>
<tr><td></td><td></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절차 4</td><td rowspan="2">주제 전개</td><td>기술적</td><td>서사적</td><td>설명적</td><td>논증적</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실현 형식</td><td colspan="4"></td></tr>
<tr><td>절차 5</td><td>텍스트 내용</td><td colspan="4"></td></tr>
</table>

(출처: 브링커, 1983, 이성만 역, 1995; 저자수정)

결국 브링커의 텍스트 유형 분석 모델을 통해 추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텍스트 ‘에너지자립마을’의 의미를 기록하여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텍스트로서 에너지자립마을은 시간축과 경관으로 구성된 상징적 의미 공간으로, 에너지자립마을의 텍스트적 의미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은 비조직·조직적으로 나열되어, 생산자 중심의 일·쌍 방향적 의사소통 형식을 통해 실현된다. 결국 상징적

텍스트 기능을 지니고 있는 에너지자립마을은 민, 민·관, 관의 주체적, 정책적 판단에 의해 만들어 진 의사소통의 공익적 전시(傳示)텍스트로 볼 수 있다.”

2. 환경관 구분 및 분석틀 구성

2.1. 환경관에 대한 논의

2.1.1. 환경관(環境觀)

O'Riordon(1981a, 1981b)은 '환경주의(environmentalism)'는 "환경에 관한 이념"인 동시에 환경에 대한 "인간의 마음가짐과 특정한 행동 방식", 즉 "인간의 세계관, 신념 및 행동양식"을 의미하고 공공정책을 변화시키는 환경에 대한 특정한 관점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pepper(1984)는 인간이 인식하는 환경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문화적 여과기(器)를 통한 것이며, 이러한 문화적 여과는 사회적·문화적으로 구성되어 인간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특정한 사회에서 환경관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위 논문에서의 환경관(the view of environment)은 지역 과 전 지구적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친 인간의 세계관, 가치관, 신념 및 문화를 의미한다.

2.1.2 환경관 논의

O'Riordan(1981a, 1981b)은 환경관을 기술 중심주의(Technocentrism)와 생태중심주의(Ecocentrism)로 구분하였다. 기술 중심주의는 기술만능주의(Cornucopians)와 환경 관리주의(Environmental managers)로 나뉘며, 생태중심주의는 자급자족(self-reliance)/소프트 테크놀로지스트(Soft Technologists)와 심층생태주의(Deep ecologists)로 나누어진다. 진(進)일보하여 Pepper(1984)는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보는 방법에 따라 인간중

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로 구분한다. 인간중심적 관점은 비인간 세계에 도구적 또는 사용가치에 가치를 두지만, 생태중심적 관점은 사용가치와 상관없이 비인간세계의 그 존재 자체에 가치를 둔다. 이는 환경 논담(論談)을 구분하는 것이 인간중심적인지, 생태중심적인지에 달려있다고 한 Eckersley(1992)의 견해와도 부합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배적 사회 인식의 틀(Dominant Social Paradigm)'이 '새로운 생태환경 인식체계(New Ecological Environmental Paradigm)'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Milbrath(1989)의 견해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Ingraham(1990)은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관점은 "지배적인 서구 인식의 틀"과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을 비인간적인 자연과 관련하여 분리되어 있고 우월한 존재로 간주하고 생물종의 가치를 인간의 '자원'으로서 여겨지며, 과학기술에 강한 신뢰를 보인다. 이에 반해 생명중심주의(biocentric) 관점은 "새로운 환경 인식체계(New Environmental Paradigm)"와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은 자연의 맥락에 위치한다. 또한 다른 생물종에 대해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를 부여하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태도를 지지한다.

환경관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환경관은 인간과 자연의 의미를 밝힘에 있어서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기술중심주의(Technocentrism)와 생태중심주의(Ecocentrism)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2.1.3. 환경관 구분

환경관은 자연과 인간의 지위(地位)를 어떻게 보고 환경문제를 해결 하는가?에 따라 인간중심주의 와 생태중심주의의 두 입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의 이분법적 논의는 환경윤리뿐만 아니라, 생태정치학, 환경사, 환경사회학에 반영되어 있다(Eckersley, 1992).

1) 인간중심주의(기술중심주의)환경관

'인간중심주의'에서 자연계의 자원은 저장고로 추락(墜落)하여, 도구적 가

치(instrumental value)만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 자연은 인간의 목적에 따라 도구 또는 수단으로서 사용될 때에만 값어치를 가지게 된다(Eckersley, 1992). 또한 인간을 다른 모든 존재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현상을 생태철학에서는 인간중심주의라고 한다(박이문, 1994: 한면희, 1997).

이러한 사고는 인간이 환경보다 우월하다는 신념에서 출발한 것으로, 과학기술을 이용한 사람들의 가치관이 반영된 생태학적 위기 문제는 인간의 가치관, 자연관, 세계관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조용개, 2008).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중심주의'는 과학기술에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 '기술중심주의'와 입장을 같이 하며 pepper(1984)는 기술중심주의 환경관이 과학의 획기적인 발전을 배경으로 형성되었으며, 고전 과학의 원리와 우주는 고정불변의 법칙과 객관적인 법칙으로 통제될 수 있다고 보는 기계관(觀)이 형성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결국, 인간은 환경보전보다는 경제적 요구를 더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자연의 근원(root)은 파괴되었다.

(1)기술만능주의

기술만능주의는 과학기술에 대한 강한 믿음을 부여하며 성장의 신화를 신봉하여 기술적·정치적·환경 관리적 낙관론을 지나칠 정도로 내세우는(Pepper, 1984)인간중심적 입장이다. 전제조건으로, 자원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익을 위해 쓰이며 자연은 한없이 관대(寬大)하여 우리가 잘못을 행하여도 인간에게 아낌없이 많은 것을 안겨주고 있다(Dryzek, 1997).

기술만능주의(Cornucopian)의 특성을 O'Roiordan(1981b)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인간은 어떤 경우의 정치적·과학적·기술적 어려움도 항상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둘째, 성장 위주의 목적이 개발계획 평가 및 정책 형성의 합리성을 규정(規定)한다.

셋째, 세계 인구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인간능력에 대한 낙관론을 고수(固守)한다.

넷째, 과학 기술 전문가는 경제성장, 공중보건, 안전과 같은 문제에 훌륭한 조언을 한다고 믿고 있다.

다섯째, 개발계획 평가나, 정책검토과정에 있어 대중 참여나 장시간의 토론은 무의미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여섯째, 성자(聖者)의 산물인 경제적 풍요와 이를 위한 의지, 독창성, 발전을 통해 모든 장애가 극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다.

이러한 특징을 살펴보았을 때, 기술만능주의는 인간의 능력과 과학기술에 대한 극단적인 낙관론을 펼치는 입장으로, 과학기술전문가 또는 엘리트의 의사결정에 매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이나 시민참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인간은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자연의 무한한 자원을 착취하며, 성장의 한계는 없으며 성장과 산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과학기술과 경제적 방법으로 해결 가능함을 주장한다.

자연은 무한한 자원의 저장창고로 이성과 감각이 없는 물질일 뿐이며, 인간은 과학기술을 도구로 자연자원을 찾아낼 뿐이다. 이와 같은 기술만능주의 관점에서는 환경문제는 '문제'로서 인식되지 않으며, 성장의 신화를 굳게 믿고 있다.

(2) 환경관리주의

사회체제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부분적인 환경정책이나 과학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이러한 환경관을 환경관리주의라고 부른다(구도완, 1994). 이와 같이 환경관리주의는 현대의 환경위기가 기존의 기술과 과학의 한계에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이 기술, 과학의 결함이 아닌 미(未)발달에 있으며 기술과 과학이 발달할수록 환경문제는 해결가능하다는 낙관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김양희, 1993).

이는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이 자연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환경관리주의와 기술만능주의 별반 차이가 없다.

하지만 환경관리주의가 기술만능주의와 차이점은 자연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기술만능주의에서는 자연환경을 충분한 에너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변형될 수 있는 무한한 자원으로 본 반면 환경관리주의에서는 자연환경의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더불어 환경관리주의는 객관적인 과학의 일반법칙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중의 참여는 일부분(一部分)으로 제한하고 과학과 전문가(expert)들의 의견만을 권위로 인정한다(Pepper, 1984).

이러한 관점은 환경 과학자, 환경 생태학자, 환경 법률가, 환경 계획가와 같은 전문가들을 만들어 내어, 지금의 자연환경·환경교육에 영향을 미쳤다(O'Riordan, 1981b). 이런 점을 바탕으로 환경관리주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O'Riordan, 1981b).

첫째, 세금, 벌금 등을 통한 적절한 경제적 재조정, 최소한의 환경 영향에 대한 법적 권리 개선, 또한 환경적, 사회적 악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자원 착취는 계속될 수 있다는 믿음이다.

둘째, 토론이나 이해집단간의 합의를 위한 연구를 고려하여 정책 평가 기법 및 결정 검토과정의 인정이다.

이러한 환경관리주의 관점은 자연의 한계를 인정하고 과학적인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O'Riordan(1981b)에 따르면 환경관리주의 관점에서는 경제적, 정치적 측면의 구조적 변화 없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오염을 줄이고, 자원 착취를 규제하고, 재활용과 보존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 정책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기초적인 노력만을 하려고 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환경관리주의는 산업사회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체제를 유지하면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향하는 입장을 취한다. 즉, 경제성장과 환경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

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관리주의는 '지속가능한 발전론' 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산업주의와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을 지속시키면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환경과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논담으로서, 인간중심주의적인 특징이 강하다. 이 담론은 미래세대의 요구충족 능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한계의 개념을 포함하지만 동시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당연시함으로써 경제성장 한계 담론을 무력화시킨다. 이러한 내재적 모순 때문에 성장주의 담론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구도완, 2006). 그리고 이전의 논의들과 다르게 경쟁이 아닌 협력을 강조하고 자연을 기계가 아닌 유기체적 존재로 이해할 수 도 있지만 여전히 인간은 자연환경 보다 높은 위치에 존재하며, 성장의 한계가 기술발전을 통해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생태중심주의보다는 환경관리주의의 성격이 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Dryzek, 1997).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환경관 분석틀에서 환경관리주의 환경관의 일부분으로 지속가능한 발전론을 포함하였다.

2) 생태중심주의 환경관

'생태중심주의' 는 인간을 지구 생태계의 일부분으로, 생태계의 법칙에 종속되는 존재로 인지(認知)하는 양식이다. 다시 말해서, 자연과 인간의 동등성 또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종속성을 표방하는 낭만주의와 다윈과 맬서스의 과학 이론과 같은 생물학적 이론에 영향을 받아 낙관할 수 없는 미래성향을 내세우는 환경관이다(Pepper, 1984).

O'Riordan은 생태중심주의의 기원을 '초자연주의(transcendentalism)' 라는 철학적 사조(思潮)에서 찾았다. '초자연주의'는 자연과의 단순한 관계가 자연을 경외하는 관계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연은 생물학적인 생존권을 갖는 엄격한 인격체로 격상되므로 인간과 자연은 윤리적 관계(생명윤리)로 맺어지게 된다.

이 관점에서 보면, 자연의 수용력까지도 감안한 생명윤리에 바탕을 두고 자연에 대한 강한 경외감을 나타내고 합리적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믿음과

경외사상을 품고 있다(pepper, 1984).

따라서 생태주의자들은 경제성장이 필연적(必然的) 환경파괴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성장을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반(反) 성장주의를 주장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 변화, 금욕, 절제 기타 등등을 통한 문화 활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 또한 소(小) 지역을 중심으로 생태적 경제와 '적절한 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을 추구하고 공동체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끊임없이 소비적 욕구를 만들어 내는 사회구조를 전환하기 위해서 문화의 총체적 변화와 필요성을 생태주의자들은 주장한다(구도완, 1994b; 맹은혜, 2011).

(1) 생태합리주의

생태합리주의는 합리성을 바탕으로 산업주의와 자본주의를 변형하여 환경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담론(談論)이다. 생태합리주의는 생태낭만주의와 달리 근대 성과물의 시행착오를 반성적으로 살펴서 과학기술을 통해 생태적으로 급진화하고 재구성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회를 지향(志向)한다(구도완, 2006). 그러나 생태합리주의는 개인의 의식변화보다 구조자체를 중요하게 인지하므로 생태합리주의자들은 생태낭만주의자들이 무시하는 생태적 쟁점들의 사회 구조적 차원을 심사숙고한다(Dryzek, 1997). 생태합리주의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생명을 존중하며, 사회적 정의, 다양성, 평화와 같은 다양한 가치를 지향하며 자연을 신비로운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 즉, 생태합리주의는 계몽의 가치를 내세워 자연파괴와 불평등을 양산했고 인류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 했지만 평등과 권리, 열린 대화 그리고 관행들의 비판적 문제제기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생태적인 방향으로 근본화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계몽의 가치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생태낭만주의와 다른 차이점이다.

결론적으로 생태합리주의의 핵심은 정치적 행동과 구조적 변화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사회적·생태적 위기에 생태적 한계를 재인식 하는 것이

다. 자연은 인간이 자신의 방식을 바꾸어야만 잘 유지될 수 있는 생태계로 인식하며 물질적 이익에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고 지배해도 된다는 당위성은 어디에도 없다. 다시 말해서, 계층구조와 자연 지배를 정당화해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책무의 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더 높다(Dryzek, 1997).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구도완(2006)은 생태합리주의 담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명을 존중하지만 인간을 제외한 자연에 존재론적, 윤리적 특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둘째, 합리성, 근대, 과학기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태적으로 급진화하고 재구성한다.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회를 지향한다.

셋째, 사회적 정의, 다양성, 평화와 같은 다양한 가치를 지향한다.

그리고 담론 자체가 진일보하여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구도완, 2006).

첫째, 댐 개발 정책, 도시개발정책,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립, 간척사업, 자연보호 정책등과 같은 개발 지상주의, 경제지상주의적 정부정책 등에 제동(制動)을 걸어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둘째, 기업에 감시, 고발, 불매운동 등의 활동을 통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발전시키고 산업주의와 자본주의의 병폐를 줄이는데 기여했다.

셋째, 쓰레기 분리배출, 자전거타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같은 생활 속의 실천운동과 정부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주어 생활양식을 전환하는데 기여했다.

이러한 생태합리주의는 근대의 성과(계몽사상의 긍정적 요소)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 소통과 토론을 통해 생태주의와 민주의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기므로 지구환경위기(지구적 한계를 인정하며 생태계로서의 자연과 인간이 복잡한 상호 연관의 관계 안에 있다는 관점을 전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 더불어 서구의 근대적 합리주의를 넘어서는 자기반성적인 생태적 합리성을 지향한다. 인간 이성의 독단이 아니라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는 소통적이고 생태적인 합리성을 지향하며 '감성'을 일부분으로 받아들인다(구도완, 2006).

(2) 생태낭만주의

생태중심주의는 지구 생태계의 수용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성장 위주의 패러다임이 생태 위기 속에서 그 한계를 인정하고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새로운 환경인식체계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즉, 자연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자신의 감정이입에 충실하고 덜 인위적인 태도로 세계를 변화시키고 지키면서 합리와 진보를 강조하는 계몽사상을 거부한 낭만주의를 계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Dryzek, 1997) 자연이 과학적 지식을 통해 가장 잘 이해되고 그런 지식을 토대로 조작될 수 있다는 주장에 반대한다(Dryzek, 1997). 또한 인간은 자연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자연은 그 자체의 목적과 의미를 갖는다는 '생물윤리' 개념으로 요약되는 생태중심주의에 이르게 되어 19세기 낭만주의의 많은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Pepper, 1984).

따라서 생태낭만주의는 서구·근대·이성·남성과 같은 지배적인 가치를 저버리고 비 서구·탈근대·영성(靈性)·여성과 같은 새로운 대안적 가치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환경운동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구도완, 2006) 그런 면에서 세상의 변화는 개인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믿는다. 생태낭만주의자들은 자연은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있는 존재이며 생태적 한계가 존재하며 한계상황을 인정하고 엘리트와 정부나 기업 그리고 여타 조직과 같은 집단적 행위자를 무시하면서 생태적 감수성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길 바란다. 종류로는 생태공동체주의, 생물지역주의, 녹색라이프스타일, 심층생태론, 문화적 에코페미니즘을 들 수 있다(Dryzek, 1997). 그러나 생태낭만주의는 지속가능발전론을 비롯한 개량적인 환경운동과 환경정책으로는 환경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보고 인간의 내면의 존재하는 자연친화적인 본성, 초월

적이고 영성적인 본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생태낭만주의는 인간중심적 인식론에 반대하며, 산업주의를 비판하고 환경위기를 문명의 위기로 간주하고 새로운 문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보며, 작은 공동체 사회를 이상향을 삼는다(구도완, 2006).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생태낭만주의 담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구도완, 2006).

첫째, 인간중심주의적 인식론에 반대한다.
둘째, 서구, 합리성, 근대를 근본적으로 비판한다. 근대과학도 비판의 대상이다.
셋째, 생태적 감수성이나 영성, 종교적 깨우침을 중시한다.
넷째, 환경위기는 문명의 위기이므로 새로운 문화(농업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 사회)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생태낭만주의에 포함되는 여러 논의들은 자연과 인간의 평등한 관계를 회복하고 개인의 삶을 변화시킴으로써 생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과 자연에 대해 감정이입의 태도를 가지고 개인적 차원의 영적 각성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생태 위기 극복의 사회적 측면을 소홀히 하고 지나치게 개인들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전 지구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다(Dryzek, 1997). 지금까지 환경관을 기술만능주의, 환경관리주의, 생태합리주의, 생태낭만주의의 네 가지 입장으로 구분하고 특징을 살펴보았다.

2.1.4. 환경관 분석틀 구성

1) 환경관 분석을 위한 준거 틀

이상에서 살펴본 환경론의 철학적, 윤리학적, 사회학적 고찰을 바탕으로, 환경관의 분석을 위한 준거 틀은 다음 〈표 4〉와 같이 구성하였다.

〈표 4〉 환경관 분석 준거 틀

환경관 / 영 역	인간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	
	기술만능주의	환경관리주의	생태합리주의	생태낭만주의
세계관	이원론적 세계관		일원론적 세계관	
인간-자연관계	지배 - 피지배의 관계		평등한 관계	
자연을 바라보는 가치	기계적 자연관		유기체적 자연관	
	도구적 가치		내재적 가치	
	무한히 개발될 수 있는 자원의 보고	인간을 위한 관리와 이용의 대상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	고유한 의미를 지닌 살아있는 존재
지속가능성	자연은 무한함	한계는 있으나 과학기술로 극복	전 지구적 한계 인식	
	지속가능한 성장(환경보다 경제적 가치)		지속가능한 개발(사회•경제•환경적으로)	
계몽주의의 영향	계몽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음		계몽주의 평등가치 수용	계몽주의 거부
과학기술에 대한 태도	매우 강함	강함	신중 (생태적 재구성)	회의적
인간의 능력에 대한 태도	어떠한 정치적·.과학적. ·기술적 어려움도 해결	인간의 능력을 신뢰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을 존중	인간의 관계 형성 능력 인정, 자연의 질서 존중
환경문제를 위한 의사결정 참가자	과학, 경제 전문가의 권위 있는 의견만을 존중	정책결정 과정에서 과학자의 권위 인정, 대중의 제한적 참여	지배구조의 사회관계가 가진 문제 인정해서 대중의 참여를 강조	개인적 차원에서 '의식의 전환'과 '깨달음
환경문제 및 해결 방안에 대한 태도	기술적 혁신과 시장기구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기술적, 정치적 환경관리적 낙관론을	과학 기술로 극복 가능하며 법적, 제도적 관리(세금과 인센티브)를 통한 문제해결을 신뢰하	사회적 구조의 변화를 통해 해결하며 재생 가능 자원 이용 및 대체 기술을 신뢰	생태학적 법칙과 생명윤리를 중시하면서 희귀종, 독특한 경관의 보전과 개인의 영적 각성

	지나치게 주장	고 조심스러운 사회개혁주의와 중재주의를 주장		및 새로운 문화로 극복 가능
수사적 특징	개척, 지배, 경쟁, 무한한 자원을 통한 성장 개발, 기계작용, 인간들 사이의 경쟁	이용, 관리, 자원, 자원의 한계, 정부의 규제, 정책, 경제논리(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이성, 생태적 합리성, 사회구조, 동물의 권리, 대안적 과학 기술	감정이입, 생태적 감수성, 영적 각성, 직관, 어머니 대지, 자연과의 교감, 조화, 몰입, 종교적 깨우침, 생명존중, 자연친화적 본성
관련 담론	프로메테우스 -코누코피아 담론	환경 문제 해결, 개발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론	환경정의, 사회생태론, 숙의 민주주의	심층녹색라이프스타일, 생태공동체주의, 생태신학

(O'Riordan, 1981b; Pepper, 1984; Dryzek, 1997; Milbrath, 1989; 문순홍, 2006; 구도완, 2006;노경임, 1999; 전소영,2013 등의 논의를 참고하여 재구성)

2) 환경관 분석틀에 따른 텍스트 분석을 위한 평가항목

본 준거 틀을 구성함에 있어서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이를 정도에 따라 '기술만능주의'와 '환경관리주의', 그리고 '생태합리주의'와 '생태낭만주의'로 세분하였지만 에너지자립마을에는 기술만능주의 환경관이 없으므로 빼기로 했다. 그리고 환경관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환경관의 하위 영역으로 '세계관', '자연관'/ '자연을 바라보는 가치', '지속가능성', '계몽주의의 영향'/ 환경문제를 위한 의사결정 참가자', '환경문제 및 해결방안에 대한 태도'/ '수사적 특징', 그리고 '관련담론'영역을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유사한 특성으로 묶으면 다음과 같다. '자연환경', '인간환경', '환경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 참가자' 그리고 '수사적 특징'의 네 가지로 범주화 하여 환경관 분석틀에 따른 텍스트 분석을 위한 평가항목은 〈표 5>와 같다.

〈표 5〉 환경관 분석틀에 따른 텍스트 분석을 위한 평가항목

환경관	하위 유목	평가항목/특징	
인간중심적 환경관 (지배/피지배)	환경관리 주의	자연환경	인간(자연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존재)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자연의 이용과 지배가 가능한 대상이며 자연요소에 도구적 가치를 지니며 자연은 인류로부터 동떨어진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곳이므로 동·식물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생태계는 평형을 유지하며 쉽게 깨지지 않는다.
		인간환경	과학기술 발달의 한계는 있으나 과학기술의 믿음이 강해서 과학기술의 발달로 극복 가능한 성장을 하며 인간의 힘과 능력을 신뢰하며 환경문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환경문제 해결 및의사결정참가자	자원과 거주 공간의 한계와 인구문제에 대해 인식하나과학기술의 발달 및 정부 규제 등 적절한 관리로 환경문제 해결하며 의사결정측면에서 주도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와 소수의 대중 참여 일부 인정한다.
		수사특징	이용, 관리, 자원, 자원의 한계, 정책, 규제, 경제논리(지속가능한 성장), 관찰과 탐구의 대상, 객체로서의 자연으로 본다.
생태중심적 환경관 (인간은 생태계 일부)	생태합리 주의	자연환경	인간과 자연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평등한 관계이므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자연은 있는 그대로 존재의 가치를 가지면 복잡한 생태계로 구성된 자연으로 보고 동·식물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경향이 그리 크지 않다
		인간환경	생태적 한계를 인식하며 자연은 인간의 방식을 바꾸어야 잘 유지 될 수 생태계로 인식을 통해서 성장의 한계 인정 및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구조변화에 관심을 갖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과학기술(친환경적 과학기술, 대안적 기술, 재생에너지와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과 소비생활의 조절하는 사회를 지양함.

		환경문제 해결 및의사결 정참가자	합리적 이성에 의한 민주적인 절차를 중시하고 생태적 쟁점들의 사회적 차원을 심사숙고를 통해서 사회구조의 변화로 환경문제 해결을 하며 대중의 참여를 강조.
		수사특징	생태적 합리성, 합리적 문제해결, 동물의 권리, 이성, 합리성, 대안적 과학기술 사용, 합리적 의사소통.
	생태낭만주의	자연환경	자연은 본질적으로 중요하며 진정으로 살아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인간은 자연에 관계를 만들며 영향을 주고받는 역동적 관계이며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내재적 가치를 부여하며 자연이 인간의 도구화되는 것을 반대함. 인간의 힘과 능력에 대한 찬양 보다는 자연의 질서와 법칙에 대한 존중이 나타나 동·식물이전은 불가능.
		인간환경	생태적 한계가 존재하며 한계 상황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인정하지만 사회구조에 대한 무관심하고 과학기술과 사회발전의 관계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임. 인간중심개발논리나 자연의 정복관의 논리에 비판적 입장을 취함. 농업중심의 공동체 사회가 이상향중 하나임.
		환경문제 해결 및의사결 정참가자	집단 행위자를 무시하며 개인적 차원에서 계몽을 통한 가치관과 행동양식의 근본적 '의식의 전환'을 추구하며 자연의 가치에 대한 영적 각성, 종교적 깨달음, 생활방식의 변화로 대응 방법을 모색함. 새로운 대안적 가치(비서구, 탈근대, 영성, 여성)와 새로운 문화를 통해 환경위기를 극복함
		수사특징	생태적 보존, 감성, 몰입, 감정이입, 직관, 생태적 감수성, 어머니 대지, 종교적 깨우침, 생명윤리, 자연친화적 본성, 영성 등

(O'Riordan, 1981b; Pepper, 1984; Dryzek, 1997; Milbrath, 1989; 문순홍, 2006; 구도완, 2006, 노경임, 1999, 전소영, 2013 등의 논의를 참고하여 재구성)

환경관을 비교, 분석을 위해 기술만능주의, 환경관리주의, 생태합리주의, 생태낭만주의의 환경관을 분류했지만 앞서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환경관리주

의, 생태합리주의, 생태낭만주의의 환경관의 구분에 따른 장소기반 에너지자립마을의 텍스트의 환경관 분석틀을 구성하면 다음 〈표 6〉 과 같다.

〈표 6〉 장소기반 에너지자립마을 텍스트의 환경관 분석틀

환경관 / 에너지자립마을	인간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	
	환경관리주의	생태합리주의	생태낭만주의

그리고 환경관을 '자연환경', '인간환경', '환경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 참가자' 그리고 '수사적 특징'의 네 가지로 범주화 하여 환경관 분석을 위한 장소기반 에너지자립마을 텍스트의 환경관 분석틀은 다음 〈표 7〉 과 같다.

〈표 7〉 범주화된 장소기반 에너지자립마을 텍스트의 환경관 분석틀

환경관 분석틀	인간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							
	환경관리주의				생태합리주의				생태낭만주의			
	자연 환경	인간 환경	환경 문제	수사	자연 환경	인간 환경	환경 문제	수사	자연 환경	인간 환경	환경 문제	수사
체크												

(구도완, 2006, 노경임, 1999, 전소영, 2013 등의 분석틀을 참고하여 표를 수정, 보완)

이상과 같이 구성된 분석 틀은 이후의 환경관 분석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Ⅳ. 적용 및 분석결과

1. 장소기반 에너지자립마을: 전라북도 부안군 등용마을

1.1. 시대에 따른 에너지자립마을: 등용마을의 장소성

등용에너지자립마을의 장소성은 물리적 공간 '등용마을'의 의미 형성과 관련성이 있다. 등용마을의 공간을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전북 부안군 속에서 등용마을이 어떻게 장소적 의미와 이미지를 생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표 8>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등용에너지자립마을의 장소적 의미와 형성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표 8> 등용에너지자립마을의 장소성

시대	장소적 의미 와 형성 과정
1991년 이전	전북 부안은 한반도 서남부에 위치한 곳으로, 인구 6만 여명의 고장이며 변산 해수욕장과 변산반도 국립공원으로 유명한 관광지이며 내소사, 개암사 등의 사찰을 품고 있는 변산 과 넓은 들판을 가진 전형적인 농·어촌마을.
1991~2005년: 공론장(소통과정)	평범하고 평화로운 전북 부안군은 국책사업으로 공론장. -사건 1:새만금간척사업(1991-2020년 완공예정) 환경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반대와 소송을 제기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서 이 지역 사람들은 '환경'을 생각하는 계기. -사건 2:방사성폐기물건립(2003~2005년) 반대운동 과 사회적 비난 주민투표로 방사성폐기물건립을 반대하고 '에너지전환'하는 삶의 계기
2005~2014년: 소통과정 및 마을 계획(소통결과)	2005년에는 -지역 종교지도자들과 주민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전국 최초로 주민에 의한 '부안시민발전소 건립' -'마을이 지구를 구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등용마을에 '에너지자립마을'선언 :약 30가구 60여 명의 주민이며 80%가 천주교 신자 -등용마을과 원불교 부안교당, 부안성당에 '햇빛발전소 1,2,3호기 설치. :용량은 3kW이며 한전에 15년 동안 1kW당 716,4원에 판매

	2006년에는 변산 공동체학교에 햇빛발전소 4호기 설치 2008년에는 생명평화 마중물 과 등용마을에 10kW 태양광 5,6,7호기 설치 2009년 12월 마지막 등용마을에 5kW 태양광 8호기 설치. -생명평화 마중물: 300~400평 교육관 :자전거 발전기, 풍력발전기, 태양광 조리개
소통과 계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有)	-생태학교(성당 신부님을 중심으로 '생태, 평화' 주제로 마을공동체 추구) :에너지자립, 올바른 농산물 생산, 가치교육 -등용마을 에너지자립 프로젝트 :2007년부터 에너지 소비량 10%줄이기 운동(전기사용량 기록, 백열등을 고효율 전기로 교체, 전기 멀티탭 설치), 저소득층 주택 단열 개선 시범사업,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자립마을 체험 프로그램 운영 -2009년 대한민국 녹색기후상(국회기후변화포럼):부안시민발전소(대상) -2104년부터 '견학'은 정지된 상태이며 2016년 부안군청에 지원으로 에너지자립마을 선정 -교육을 통한 다른 지역에 에너지자립마을 설립하는데 기여.

등용에너지자립마을의 장소적 의미와 형성과정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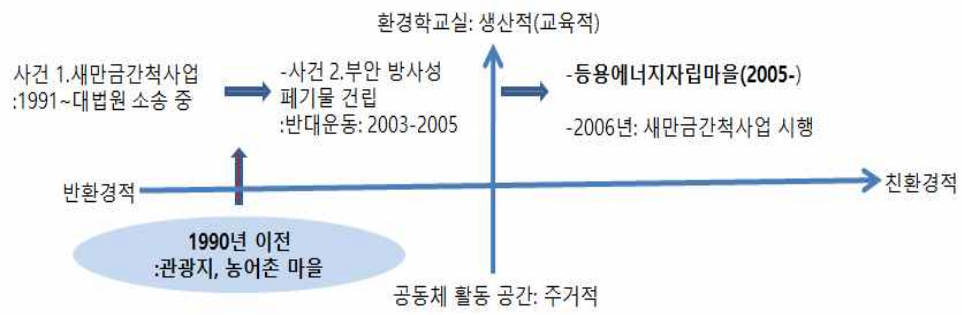
2003년 이전 전북 부안군은 넓은 들판을 지닌 농·어촌 지역이며 유명한 관광지이다. 그러나 평범하고 평화로운 전북 부안군은 국책사업(새만금간척사업, 방사성폐기물 건립)의 공론장이 되었다. 격렬한 반대운동과 타 지역 주민들에게 비난을 들으면서 부안군 주민들은 환경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소비하는 에너지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로 삶의 패턴을 변환하는 동기부여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식을 전환한 소지역 등용마을 주민들과 종교지도자들은 출자한 자금을 바탕으로 최초로 주민에 의한 부안시민발전소 건립하였다. 부안시민발전소의 에너지자립계획을 통해 등용마을은 에너지효율과 에너지자립, 대안적 가치교육, 올바른 농산물생산 등을 추구하는 에너지자립공동체로 나아갔다. 하지만 2014년 주민들과 부안시민발소 간(間) 이익충돌로 인해 잠

시 마을사업이 중단되기도 했으나 2016년 부안군청의 도움으로 에너지자립마을로 선정되었다. 이를 발판으로 새로운 에너지 장소기반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역사성에 따른 등용마을의 장소적 이미지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에너지 소비 중심, 사람 중심의 기능적 마을 이미지에서 에너지 생산, 일상생활 에너지 소비 습관 변화, 환경교육 등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자립을 전환하려는 곳이 등용마을이다. 과거(전통), 현재(문화), 미래(자연)이라는 3개의 시간 축으로 에너지자립 등용마을은 전북 부안군의 상징적 공간으로 친환경적, 대중적, 문화적, 미래지향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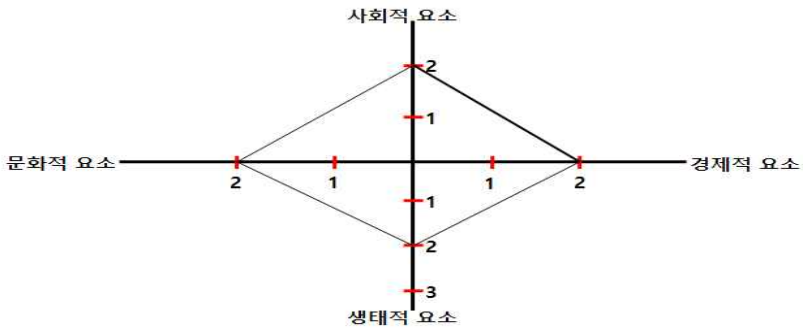
이러한 전북 부안군 공간의 역사성에 따른 등용마을의 장소적 이미지 변화를 환경성의 축(친환경적/반환경적)과 주거성의 축(주거적/에너지 생산, 교육적)으로 도식화 하면 아래 <그림 4>와 같다.



<그림 4>역사성에 따른 등용마을의 장소적 이미지 변화

이 도식에서 등용에너지자립마을 환경성평가의 친환경성은 다음과 같다. 등용에너지자립마을은 주민들과 종교지도자의 자발적 참여로 에너지 소비에서 생산으로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절약'으로 에너지자립마을을 만들어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상호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며 사회적 압력도 가능하다. 그리고 방폐장 반대운동을 통해서 사회·종교(80%정도가 천주교신자)적 유대감이 더 강해서 적극적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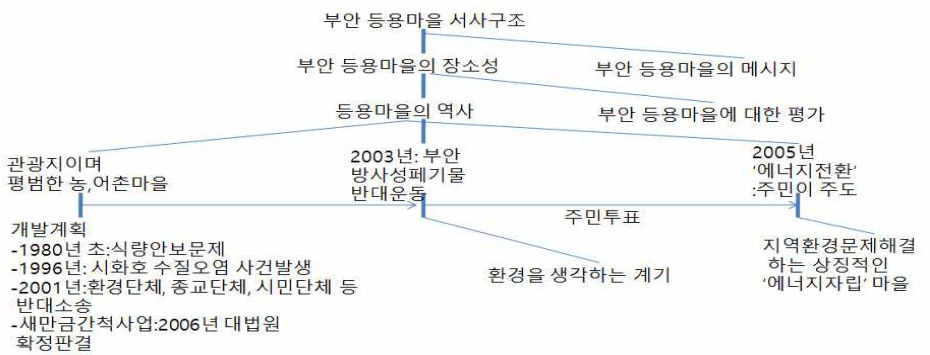
여와 적극적 에너지 교육에 참여 하여 절약 노하우를 익히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하고 있다. 즉, 에너지 마을 추진 계획을 통해서 등용마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양식을 바꾸어나가는데 기여했으며 견학을 통해 다른 에너지자립마을에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러므로 친환경적인 생활방식이나 문화적인 행동양식으로 정착되고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 위 내용을 도표화 하면 다음 <도표 1>과 같다.



<도표 1>등용에너지자립마을 환경성평가의 친환경성

1.2. 장소기반 등용마을의 서사성

시기별 장소성은 일정한 갈등과 해결 방안으로 구성되어 새로운 이야기에로의 의미적 변천을 겪는다. 등용마을의 서사구조를 <그림 5>와 같다.



<그림 5>장소기반 등용마을의 서사성

<그림 5>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안 등용 에너지자립마을의 서사성은 지역 환경문제 대안을 찾는 과정을 함께하는 공익적 환경학교실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부안 등용 에너지자립마을의 서사구조를 구성하는 사건 요소들이 '새만금간척사업', '부안 방사성폐기물 반대운동' 등으로 이어짐으로써, 서사성은 거주민의 기억에 의해 구축되고 지역 환경문제 대안을 찾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기억(에너지자립마을의 시조)의 공간으로서 장소적 의미를 획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3.장소기반 등용 에너지자립마을의 텍스트 기능과 텍스트적 의미

1.3.1 등용마을 텍스트 기능

첫 번째 기능은 '제보적 기능'이다. 이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마을을 환경에 대한 철학적 사유와 노력들을 통해서 환경인식을 전환하고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며 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텍스트 기능으로 이해된다. 두 번째 기능은 '접촉적 기능'이다. 인간환경을 개혁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위한 등용 에너지자립공간을 마련해 텍스트 수용자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세 번째 기능은 '호소적 기능'이다. 부안 등용에너지자립마을이 역사적 의미와 변화과정을 통해서 즉, 비환경적이고 에너지 소비의 주체인 등용에너지자립마을이 에너지전환을 통해서 친환경적, 생태적, 문화적 등의 이미지로 인식되도록 설득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네 번째 기능은 '상징적 기능'이다. 등용마을은 의사소통 과정 중에서 직접(견학)·간접(전문가에 의한 설명, 미디어)적으로 공간의 인식이 획득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텍스트 '등용에너지자립마을'의 지배적 기능은 확장된 소통의 영역에서 수행되는 상징적 기능으로 여겨질 수 있다.

1.3.2 등용마을 텍스트적 의미

등용마을의 절차적 텍스트 유형 모델을 요약하여 도식화 하면 아래<표 9>와 같다.

<표 9> 장소기반 등용마을의 텍스트 유형

<table>
<tr><th colspan="6">장소기반 등용마을의 텍스트 유형</th></tr>
<tr><td>절차 1</td><td>텍스트 기능</td><td colspan="4">제보적, 접촉적, 호소적, 상징적기능</td></tr>
<tr><td rowspan="5">절차 2</td><td rowspan="3">의사소통 형식</td><td>의사소통 방향</td><td colspan="3">쌍방향적, 전시적 성향</td></tr>
<tr><td>의사소통 접촉</td><td colspan="3">시각적 접촉, 체험적 접촉이 지배</td></tr>
<tr><td>언어적 /비언어적</td><td colspan="3">언어적이면서 비언어적 체험이 중요</td></tr>
<tr><td rowspan="2">행위영역</td><td>공적 영역</td><td colspan="2">공공적 영역</td><td>사적 영역</td></tr>
<tr><td></td><td colspan="2">학생, 시민들을 대상</td><td></td></tr>
<tr><td rowspan="4">절차 3</td><td rowspan="2">텍스트 시제</td><td>과거형주제</td><td>현재형주제</td><td>미래형주제</td><td>무시제주제</td></tr>
<tr><td></td><td>지속가능</td><td></td><td></td></tr>
<tr><td rowspan="2">텍스트 주제</td><td>생산자</td><td>수용자</td><td>생산+수용자</td><td>파트너외적</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절차 4</td><td rowspan="2">주제 전개</td><td colspan="2">서사적</td><td colspan="2">설명적: 교육적, 체험적</td></tr>
<tr><td colspan="2">에너지자립 :기반시설 설치 과정</td><td colspan="2">에너지전환을 위한 당위성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하고 활동함</td></tr>
<tr><td>실현 형식</td><td colspan="4">정보의 비·조직적 나열</td></tr>
<tr><td>절차 5</td><td>텍스트 내용 (부록 1)</td><td colspan="4">3개의 시간축, 즉 역사(과거), 지속가능한 ‘에너지자립마을’(현재), 자연환경을 위한 ‘에너지자립마을’(미래)로 구분되며, 다시 6개의 중점경관(태양광발전소, 태양광 음식조리개, 전기자전거, 풍력발전소, 야외교육. 친환경 농업)으로 구성.</td></tr>
</table>

1.4. 환경관 분석

등용마을 주민들은 "석유나 석탄, 우라늄 등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97%는 수입에 의존하며 탄소 에너지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지구 환경적 가치를 위해서 전기요금청구서를 발송할 필요가 없는 태양과 바람 등 재생에너지개발에 힘써야 한다”는 점에서 생태적 한계를 인식하고 인간 스스로 생활방식의 변화를 주어 생태계가 잘 유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자립마을 설립 계획을 통해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구조변화에 관심을 갖으며 마을구조의 변화를 기반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종교지도자들과 주민들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에너지자립마을을 만드는데 첫발을 디뎠다. 또한 생태학적 바람직한 기술(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지열), 에너지교육(태양광 음식조리개, 전기자전거, ‘생명, 평화’), 에너지소비생활을 조절하는 사회를 지향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비추어 보면 등용마을의 환경관은 '생태합리주의'라 평가할 수 있지만 생명, 평화, 감성, 대안적 가치교육 등을 중시하는 농업중심의 공동체사회라는 생태낭만주의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2. 장소기반 에너지자립마을: 전라북도 임실군 중금마을

2.1. 시대에 따른 에너지자립마을: 중금마을의 장소성

중금에너지자립마을의 장소성은 물리적 공간 ‘중금마을’의 의미 형성과 관련성이 있다. 중금마을의 공간을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전북 임실군 속에서 중금마을이 어떻게 장소적 의미와 이미지를 생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표 10>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중금에너지자립마을의 서사적 의미와 형성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표 10> 중금에너지자립마을의 장소성

시대	장소적 의미 와 형성 과정
2008년	전북 임실군 임실읍 중금마을은 농· 축산업중심의 시골마을.
2008년 공론장(소통과정)	개인의 '인식전환' 계기 -중금마을의 한 개인(김□□)이 '전북 의제 21 대안에너지 워크숍'(주제: 기후변화, 화석연료 고갈, 장소: 등용에너지자립마을)에 참여 하면서 에너지자립마을 만들어갈 실마리를 찾음.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위해 중금마을 주민대상으로 '풍력발전기 워크숍'과 '기후변화와 온실가스'에 대한 교육하지만 논쟁만 하고 실패.
2009~2016: 소통과정 및 마을 계획(소통결과)	쓰레기제로마을(2009~)추진하면서 주민들 '인식전환' 계기 -김 선생은 혼자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면서 분리수거 설치하고 '군'과 합의해서 군청에서 쓰레기를 3일마다 실어가게 했고 2009년 말에 쓰레기 분리배출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포상금(3백만원)을 받고 이 포상금으로 분리수거 집하장 설치하고 분리수거 관리하는 사람에게 인건비로 사용하면서 군청에서 수거하는 기간이 3개월로 길어졌다. -이 과정에서 마을은 깨끗해졌고 빈터도 나왔다. 그 결과 주민들도 의식이 바뀌고 태우는 것보다는 분리배출을 더 편하게 생각할 정도로 발전하였다. 집집마다 에너지 진단(2009년) -전북의제 21에서 양성한 '에코 홈닥터들이 가정을 방문해 에너지 교육을 하고 에너지효율 개선 산업을 진행하면서 난방비를 40%이상 절감. -이 계기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주민의식 높아지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심각성을 자각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했다. 그린빌리지사업[6] 신청(2010년) -설치과정[7]에서 비용 및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여 중금마을 10가구 중 3가구는 탈락하고 조건이 맞는 아랫마을 3가구를 합쳐 10가구로 신청을 하여 선정되고 후(後)에 마을회관을 포함하여 총 11곳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마을수목원 조성(2010~) -마을에 나무 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생각은 다양하고 논쟁 :비용문제, 누가 심는가?, 나무는 어떤 종류로 할 것인가? -군에서 조경수와 지인을 통해서 쓰던 것 중 남는 것(산수유, 자두나무, 살구)을 받아서 빈터와 밭 옆에 주민 스스로 심음.

시대	장소적 의미 와 형성 과정
소통과 계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有)	중금마을은 공동체 복원 -화석연료 없이 농사, 탄소배출 제로: 석유 없는 유기농업 1)농촌진흥청 교육농장 프로그램 신청해 바이오디젤기계 구입한 김 선생은 치즈마을에서 나온 폐식용유를 정제한 농기계를 운행해 농사. 2)바이오디젤로 농기계를 운행하기 위해 유채 시범포(400평)식재하고 폐식용유를 계속 확보하고 있는 중. 3)마을 공동농장(400평)에 배추농사를 지었는데 화석연료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대신 액비와 퇴비를 사용. 4)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탄소라벨링제)시행 계획(2012)하고 2011년에 공동 농장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한 농산물을 생산. -공동작업장인 방앗간에 태양광설치하여 필요할 때 마다 이용. -무인 에너지 카페 운영: 김 선생은 자신의 집(재활용)을 '햇빛, 바람, 흙'이라는 무인 에너지카페 운영(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를 방문객이나 주민들이 체험하며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 - 전기, 일반 자전거 운영 사회적 기업, 기림초등학교(행사), 임실주공아파트(재활용) 등에 기부하고 2인용 자전거 군에 신청해서 기부 받았고 누구나 사용가능. -작은 도서관 1)관공서는 흙으로 질 수 없다고 해서 콘크리트로 짓고 표면을 황토색으로 칠함(외부비용지원: 도비/군비) 2)임실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최초로 마을 방과 후 수업: 우수사례지정(교육부) ▸환경교육(주체: 김 선생, 주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세상에서 바꾸기 어려운 것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 미술, 한문, 원예 등을 교육(주체: 외부강사, 사회적 기업: 두드림(전주대학교)) ▸활동: 정크아트(생태수업, 자원순환 이야기). 쑥버무림행사(봄/ 학생과 주민 어른들 간의 소통), 수업을 일상생활에 적용한 협동작품(벽화) -재활용을 활용한 연극: '내 나이 어찌서 유랑극단' (시간:2016, 4, 22, 공연/ 내용: 재활용하면서 갈등과 소통을 통해서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유 있는 삶/ 연극배우: 주민들)

6) '그린 홈 100만호' 보급 사업은 단독 및 공동주택, 공기업 임대 주택, 보금자리 자택과 10가구 이상 그린 빌리지 사업에 설치비 일부를 지원(단, 600kWh/월 이상 단독 주택은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환경부, 2011)

7) 2010년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소 3kW 설치비용은 1400만원에서 국가에서 보조금 60%이고 자부담 40%이다. 자부담(560만원) 중에서 군에서 200만원, 도에서 100만원 지원하고 시공업자가 이윤을 줄여서 주민 한 가구의 부담이 100만원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하였다.

중금마을에 서사적 의미와 형성과정을 요약하면, 1단계: 2008년 전북 임실군 중금마을의 김(□□)주민이 '전북의제 21 대안에너지 워크숍' 참석을 통해 마을 에너지사업의 실마리를 찾았다. 2009년 에너지자립마을 시도 과정에서 주민들과 기후변화와 온실가스에 관한 논의와 논쟁을 하며 김(□□)선생은 마을 주민들에게 쓰레기제로마을을 만들 것을 제안했으나 주민들의 비난을 받아 김 선생 혼자 힘으로 분리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임실군청과의 협의로 분리수거 된 쓰레기를 집하장으로 이동시켰다. 2009년 말 쓰레기 분리배출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포상금(300만원)을 받아 일부는 인건비로 사용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쾌적한 마을과 주민들의 공간을 찾게 되어 환경의식에 전환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2단계: 2010년 마을수목원사업은 비용문제, 나무 수종, 누가 심을 것인가? 등으로 주민들 간의 논쟁이 되었지만 군과 조경 사업가의 도움으로 새로운 마을공간에 나무심기를 시작하였다.

3단계: 에코 홈닥터들의 도움으로 가구마다 에너지 교육과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난방비 40%가 절감되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에너지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어 재생에너지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4단계: 태양광을 설치하는 '그린빌리지사업' 과정에서 비용 및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여 중금마을 10가구 중 3가구는 탈락하고 조건이 맞는 아랫마을 3가구를 합쳐 10가구 신청을 하여 선정되고 후(後)에 마을회관을 포함하여 총 11곳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였다.

5단계: 중금마을은 공동체복원 사업(석유 없는 유기농업, 무인 에너지카페운영, 전기 또는 일반자전거 운영, 작은 도서관)을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역사성에 따른 중금마을이 장소적 이미지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에너지 소비 중심, 사람 중심의 기능적 마을 이미지에서 에너지 생산, 일상생활 에너지 소비 습관 변화, 환경교육 등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자립을 전환하려는 곳이 중금마을이다. 과거(전통), 현재(문화), 미래(자연)이라는 3개의 시간 축으로 에너지자립 중금마을은 전북 임실군의 상징적 공간으로 친환경적, 대중적, 문화적, 미래지향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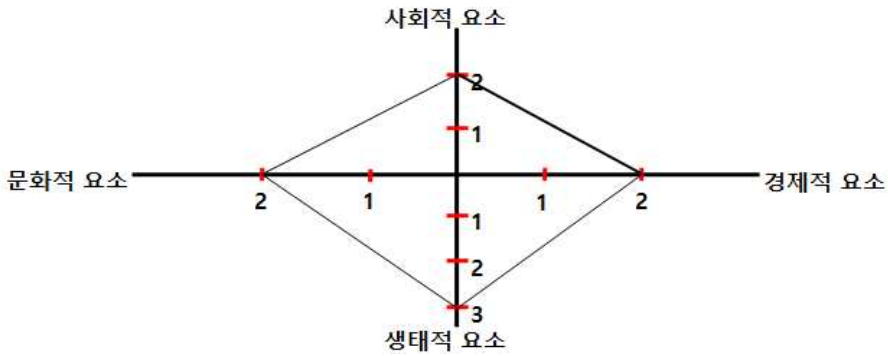
이러한 전북 임실군 공간의 역사성에 따른 중금마을의 장소적 이미지 변화를 환경성의 축(친환경적/반환경적)과 주거성의 축(주거적/에너지 생산, 교육적)으로 도식화 하면 아래 <그림 6>과 같다.

<그림 6>역사성에 따른 중금마을의 장소적 이미지 변화

이 도식에서 중금에너지자립마을 환경성평가의 친환경성은 다음과 같다. 농촌에서 한 개인이 '전북 의제 21 대안에너지 워크숍'에 참여 후 인식전환을 통해 순차적으로 에너지자립을 실천한 사례이다. 중금마을 주민들의 무관심속에 혼자 할 수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과정에서 '상'을 받고 이를 통해 조금씩 마을주민들이 참여를 시작했다. 다음 단계로 집집마다 에너지진단과 에너지교육을 받으며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진행을 바탕으로 난방비 40%이상을 절감시켰다. 이를 계기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주민의식이 높아지고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자각하여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주민들의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동가부여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태양광발전기 11기, 풍력발전소 1기, 무인에너지카페, 자전거보관소, 쓰레기 집하장, 마을수목원, 작은 도서관, 공동방앗간, 저탄소 농축산인증제(탄소라벨링제)등을 통해 화석연료 없는 유기농 농업과 탄소배출 없는 공동체 복원을 비전으로 에너지자립마을을 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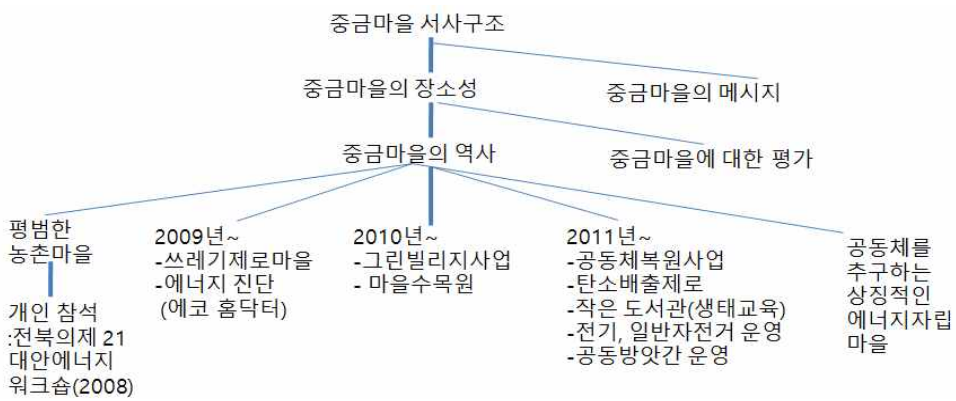
어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상호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사회적 압력도 가능하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식변화가 중금마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양식을 바꾸어나가는데 기여했다. 따라서 중금마을은 친환경적인 생활방식이나 문화적인 행동양식으로 정착되어 지속가능성이 높다. 위 내용을 도표화 하면 다음 <도표 2>와 같다.



<도표 2>중금에너지자립마을 환경성평가의 친환경성

2.2. 장소기반 중금마을의 서사성

시기별 장소성은 일정한 갈등과 해결 방안으로 구성되어 새로운 이야기에로의 의미적 변천을 겪는다. 중금마을의 서사구조를 <그림 7>과 같다.



<그림 7>장소기반 중금마을의 서사성

<그림 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중금마을의 서사성은 마을구성원 한 개인이 대안을 찾는 과정을 함께하는 공익적 환경학교실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금마을의 서사구조를 구성하는 사건 요소(전북 의제 21 대안에너지 워크숍)들은 마을 구성원 한 개인의 깨달음이 마을 속에서 실천으로 연쇄됨으로써 발생한다. 서사성은 거주민의 기억에 의해 구축되고 환경문제 대안(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을 찾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기억의 공간으로서 장소적 의미를 획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3.장소기반 중금마을의 텍스트 기능과 텍스트적 의미

2.3.1 중금마을 텍스트 기능

첫 번째 기능은 '제보적 기능'이다. 이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마을을 환경에 대한 철학적 사유와 노력들을 통해서 환경인식을 전환하고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며 전 지구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텍스트 기능으로 이해된다. 두 번째 기능은 '접촉적 기능'이다. 인간환경을 개혁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위한 중금 에너지자립공간을 마련해 텍스트 수용자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세 번째 기능은 '호소적 기능'이다. 중금마을이 추구하는 의미와 변화과정을 통해서 즉, 비환경적이고 에너지 소비에 주체인 중금마을이 에너지전환을 통해서 친환경적, 생태적, 문화(미래마을)적 등의 이미지로 인식되도록 설득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네 번째 기능은 '상징적 기능'이다. 중금마을은 의사소통 과정 중에서 직접(견학)·간접(미디어)적으로 공간의 인식이 획득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텍스트 '중금마을'의 지배적 기능은 확장된 소통의 영역에서 수행되는 상징적 기능으로 여겨질 수 있다.

2.3.2 중금마을 텍스트적 의미

중금마을의 절차적 텍스트 유형 모델을 요약하여 도식화 하면 아래<표 11>과 같다.

<표 11> 장소기반 중금마을의 텍스트 유형

<table>
<tr><td colspan="6">장소기반 중금마을의 텍스트 유형</td></tr>
<tr><td>절차 1</td><td>텍스트 기능</td><td colspan="4">제보적, 접촉적, 호소적, 상징적기능</td></tr>
<tr><td rowspan="5">절차 2</td><td rowspan="3">의사소통 형식</td><td>의사소통 방향</td><td colspan="3">쌍방향적, 전시적 성향</td></tr>
<tr><td>의사소통 접촉</td><td colspan="3">시각적 접촉, 체험적 접촉이 지배</td></tr>
<tr><td>언어적 /비언어적</td><td colspan="3">언어적이면서 비언어적 체험이 중요</td></tr>
<tr><td rowspan="2">행위영역</td><td>공적 영역</td><td colspan="2">공공적 영역</td><td>사적 영역</td></tr>
<tr><td></td><td colspan="2">학생, 주민, 시민들을 대상</td><td></td></tr>
<tr><td rowspan="4">절차 3</td><td rowspan="2">텍스트 시제</td><td colspan="2">현재형 주제</td><td colspan="2">미래형 주제</td></tr>
<tr><td colspan="2">에너지자립 및 공동체 복원</td><td colspan="2">탄소배출 제로 공동체</td></tr>
<tr><td rowspan="2">텍스트 주제</td><td>생산자</td><td>수용자</td><td>생산+수용자</td><td>파트너외적</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절차 4</td><td rowspan="2">주제 전개</td><td colspan="2">서사적</td><td colspan="2">설명적: 교육, 체험</td></tr>
<tr><td colspan="2">에너지 자립과 탄소제로 마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과정 및 공동체 복원</td><td colspan="2">에너지자립위한 당위성과 설득을 통해 에너지, 생태 교육을 제공하고 체험하고 활동함</td></tr>
<tr><td>실현 형식</td><td colspan="4">정보의 비·조직적 나열</td></tr>
<tr><td>절차 5</td><td>텍스트 내용 (부록 2)</td><td colspan="4">3개의 시간축, 즉 역사(과거), 지속가능한 에너지자립마을 ‘중금마을’과 공동체 복원(현재),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에너지자립마을’(미래)로 구분되며, 다시 7개의 중점경관(쓰레기 분리수거 집하장, 태양광발전소, 무인카페(정원, 풍력발전소), 자전거 보관소(무료), 작은 도서관, 공동농장, 공동방앗간)등으로 구성.</td></tr>
</table>

2.4. 환경관 분석

중금마을은 한 사람의 교육을 통한 인식변화가 중금마을 변화에 영향을 끼쳐 주민들 생활방식이 바뀌어 가는데 도움을 준 에너지자립마을이다. 공동방앗간, 공동농장에서 ‘성장보다는 나눔’(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소

통)에 의미를 부여하고 지구공동체 삶을 추구하는 재생에너지는 작은 기술일 뿐 근본적으로 생명은 평등하다는 점에서 생태적 한계를 드러내며 자연환경은 인간의 생활방식을 바꿀 때 유지 될 수 있는 생태계로 인식한다. 또한 마을 비전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중금마을주민들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구조변화에 관심을 갖고 마을구조 변화를 계기로 전 지구적 환경문제를 해결하며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에너지자립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태학적 바람직한 기술을 이용(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계몽을 위해 생태교육(작은 도서관)과 소비생활(공동방앗간, 공동 자전거, 마을수목원, 공동농장, 무인에너지카페, 쓰레기집하장)의 조절을 통해 화석연료 없는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공동체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이런 점을 비추어 보면 '생태합리주의'라 볼 수 있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깨달음을 통한 가치관과 행동양식의 근본적 '인식전환'을 마을에 실천행동하면서 생명평등이라는 농업중심의 공동체사회를 꿈꾸며 실현한다는 점에서 '생태낭만주의'도 나타난다.

3. 장소기반 에너지자립마을: 전라북도 고창군 월곡마을

3.1. 시대에 따른 에너지자립마을: 월곡마을의 장소성

월곡에너지자립마을의 장소성은 물리적 공간 '월곡마을'의 의미 형성과 관련성이 있다. 월곡마을의 공간을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전북 고창군 속에서 월곡마을이 어떻게 장소적 의미와 이미지를 생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표 12>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월곡에너지자립마을의 서사적 의미와 형성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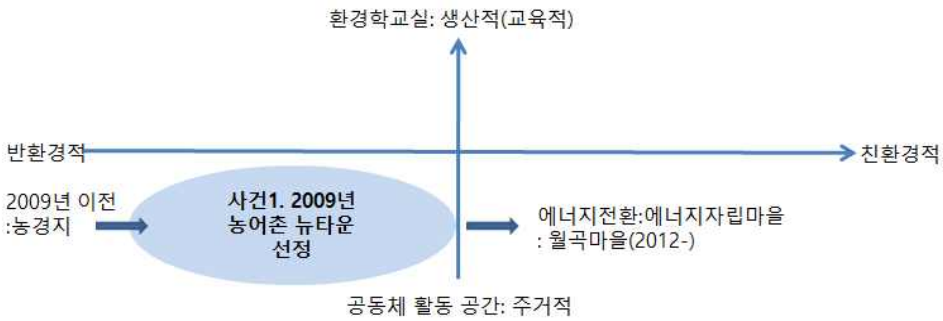
<표 12> 월곡마을의 장소성

시대	장소적 의미 와 형성 과정
2009년: 공론장(소통과정)	귀농·귀촌 1번지 전북 고창군이 야심차게 추진한 농어촌뉴타운은 농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논과 밭이었던 자연환경이 거주공간으로 변화하는 계기.
2009~2013년: 소통과정 및 마을 계획(소통결과)	농어촌뉴타운 시범사업으로 미래형 에너지자립마을 탄생. -332억 원을 투입하여 2013년 6월 준공검사 완료 후 입주. -주택분양가 1억 5천만원 중 5천만원은 정부주택자금에서 연 3%로 융자. -월곡마을 가구수는 100세대(도시귀농인: 36가구, 현지인: 64가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기술협약을 체결. -모두 집은 남향으로 배치되고 전체 세대에 에너지절감시설이 설치. -주택의 모델은 총 7가지로 3가지는 에너지 자립형(태양광, 태양열, 지열), 4가지는 일반형(태양광)으로 설계된 저탄소 녹색마을.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체 세대를 목조주택으로 건축. -쓰레기분리수거 집하장이 있고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 기계장치. -마을 전체를 생태조경사업과 함께 생태하천이 마을을 휘감아 흐름.
2013년 6월~: 소통과 계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無)	환경에 관한 주민교육 :고창군에서 그린탄소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전부이며 에너지, 환경교육은 없었다. 월곡마을 농어촌뉴타운 건설 :단양, 장수, 고창, 장성, 화순으로 전국 5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이 중 고창이 우수사례가 되어 벤치마킹 대상.

월곡마을의 장소적 의미와 형성과정을 요약하면, 귀농·귀촌 1번지 고창군 농어촌 뉴타운(100세대)는 에너지를 자가 생산할 수 있는 곳으로 주택자금 저리(低利) 융자,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장치와 집하장 시설을 만들었다. 또한 전체 세대를 목조주택으로 건축하여 생태조경 사업을 함께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난방비 절감이 발생하여 경제적 여건은 좋아졌으며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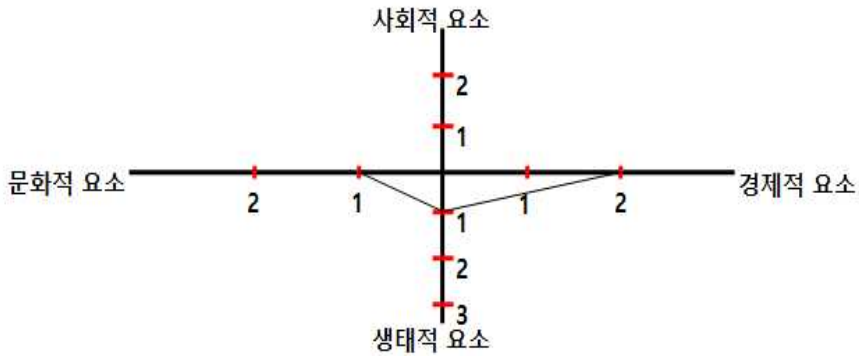
이를 바탕으로 역사성에 따른 월곡마을에 장소적 이미지 변화를 보면 다

음과 같다. 에너지 소비 중심 이미지에서 에너지 생산으로 에너지자립을 전환하려는 곳이 월곡마을이다. 과거(전통), 현재(문화), 미래(자연)이라는 3개의 시간 축으로 에너지자립 월곡마을은 전북 고창군의 상징적 공간으로 친환경적, 미래지향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전북 고창군 공간의 역사성에 따른 월곡마을의 장소적 이미지 변화를 환경성의 축(친환경적/반환경적)과 주거성의 축(주거적/에너지 생산, 교육적)으로 도식화 하면 아래 <그림 8>과 같다.



<그림 8>역사성에 따른 월곡마을의 장소적 이미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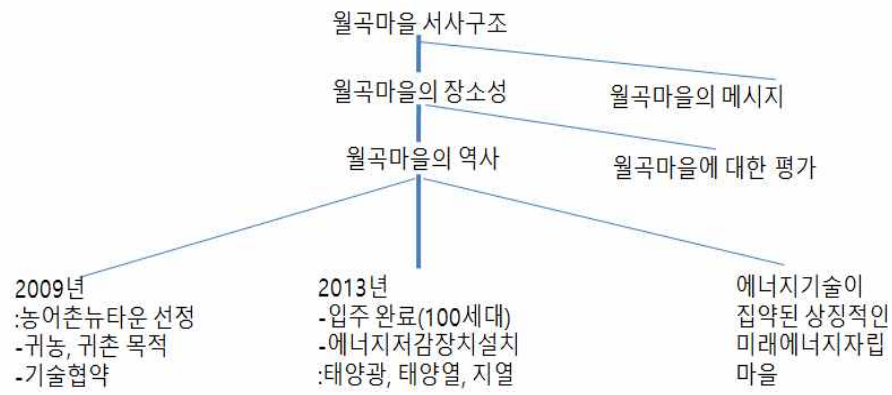
이 도식에서 월곡에너지자립마을 환경성평가의 친환경성은 다음과 같다. 월곡마을은 시범사업자로 선정되어 계획적으로 만든 마을이다. 환경문제(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주거 공간을 에너지과학기술(지열, 태양열, 태양광발전소)과 에너지효율성을 높인 미래형 에너지자립마을로 에너지 절약,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전국 5개 지자체(단양, 장수, 고창, 장성, 화순)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타운 건설 중에서 고창 월곡마을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정되고 패러다임 순환도 가능하다. 위 내용을 도표화 하면 다음 <도표 3>과 같다.



<도표 3>월곡에너지자립마을 환경성평가의 친환경성

3.2. 장소기반 월곡마을의 서사성

시기별 장소성은 일정한 갈등과 해결 방안으로 구성되어 새로운 이야기에로의 의미적 변천을 겪는다. 월곡마을의 서사구조를 <그림 7>과 같다.



<그림 9>장소기반 월곡마을의 서사성

<그림 9>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월곡마을의 서사성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조성한 마을로 귀농·귀촌 1번지 고창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기술협약을 체결하여 전체 세대에 에너지 절감시설이 설치된 농

어촌뉴타운이다. 다시 말해, 월곡에너지자립마을의 서사구조를 구성하는 사건 요소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에 소통이 없는 기술적으로 만 구축된 미래에너지자립마을로 연쇄됨으로써, 서사성은 거주민의 기억에 의해 구축된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과학기술로 환경문제 대안을 찾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기억(에너지자립마을)의 공간으로서 장소적 의미를 획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3. 장소기반 월곡마을의 텍스트 기능과 텍스트적 의미

3.3.1 월곡마을 텍스트 기능

첫 번째 기능은 '제보적 기능'이다. 이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마을을 환경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철학적 사유와 노력들을 통해서 마을 구조를 전환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며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텍스트 기능으로 이해된다. 두 번째 기능은 '접촉적 기능'이다. 인간환경을 개혁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위한 에너지자립공간을 마련해 텍스트 수용자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세 번째 기능은 '호소적 기능'이다. 월곡에너지자립마을은 기술적으로 에너지전환을 통해서 미래마을 이미지로 인식되도록 설득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네 번째 기능은 '상징적 기능'이다. 월곡마을은 의사소통 과정 중에서 직접(견학)·간접(미디어)적으로 공간의 인식이 획득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텍스트 '월곡에너지자립마을'의 지배적 기능은 확장된 소통의 영역에서 수행되는 상징적 기능으로 여겨질 수 있다.

3.3.2 월곡마을 텍스트적 의미

월곡마을의 절차적 텍스트 유형 모델을 요약하여 도식화 하면 아래<표 13>과 같다.

<표 13> 장소기반 월곡마을의 텍스트 유형

<table>
<tr><td colspan="6">장소기반 월곡마을의 텍스트 유형</td></tr>
<tr><td>절차 1</td><td>텍스트 기능</td><td colspan="4">제보적, 접촉적, 호소적, 상징적기능</td></tr>
<tr><td rowspan="5">절차 2</td><td rowspan="3">의사소통 형식</td><td>의사소통 방향</td><td colspan="3">전시적 성향</td></tr>
<tr><td>의사소통 접촉</td><td colspan="3">시각적 접촉이 지배</td></tr>
<tr><td>언어적/비언어적</td><td colspan="3">비언어적 체험</td></tr>
<tr><td rowspan="2">행위영역</td><td>공적 영역</td><td colspan="2">공공적 영역</td><td>사적 영역</td></tr>
<tr><td></td><td colspan="2"></td><td>√</td></tr>
<tr><td rowspan="4">절차 3</td><td rowspan="2">텍스트 시제</td><td colspan="2">현재형 주제</td><td>미래형주제</td><td>무시제 주제</td></tr>
<tr><td colspan="2">기술적 측면을 강조한 마을</td><td></td><td></td></tr>
<tr><td rowspan="2">텍스트 주제</td><td>생산자</td><td>수용자</td><td>생산+수용자</td><td>파트너외적</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절차 4</td><td rowspan="2">주제 전개</td><td colspan="2">서사적</td><td colspan="2">설명적: 교육, 체험</td></tr>
<tr><td colspan="2">에너지 자립과 탄소제로 마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과정</td><td colspan="2"></td></tr>
<tr><td>실현 형식</td><td colspan="4">정보의 조직적 나열</td></tr>
<tr><td>절차 5</td><td>텍스트 내용 (부록 3)</td><td colspan="4">3개의 시간축, 즉 역사(과거), 지속가능한 ‘에너지자립마을’(현재), 자연환경을 위한 ‘에너지자립마을’(미래)로 구분되며, 다시 3개의 중점경관(집집마다 재생에너지를 활용, 기계식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및 쓰레기분리수거 집하장, 텃밭)</td></tr>
</table>

3.4. 환경관 분석

월곡마을은 자연환경측면에서 이원론적 세계관을 함의하고 있다. 즉, 산림, 농경지 훼손 등으로 야기되는 생태적 문제보다는 시장 논리에 따라 개발을 통해 미래형에너지자립마을을 건설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자연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연을 인간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자연의 이용과 지배가 가능한 대상 또는 도구적 가치로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환경측면에서 지자체가 주축이 되어 정부정책 시범사업자로 선정되고 친환경과학기술인 에너지효율저감장치(태양열, 태양광발전소, 지열)를 이용하여 지금의 인간환경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환경문제해결측면에서 사람과 사람사이의 소통과 상호작용 없이 환경문제를 경제적 논리(지속가능한 성장)와 소수의 사람(과학기술의 전문가, 엘리트의 의사결정)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중심적 환경관(환경관리주의)이다.

4. 장소기반 에너지자립마을: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 지평교회

4.1. 시대에 따른 에너지자립마을: 지평교회

지평교회의 장소성은 물리적 공간 '지평교회'의 의미 형성과 관련성이 있다. 지평교회의 공간을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부천시 원미동 속에서 지평교회가 어떻게 장소적 의미와 이미지를 생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표 14>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지평교회의 장소적 의미와 형성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표 14> 지평교회의 장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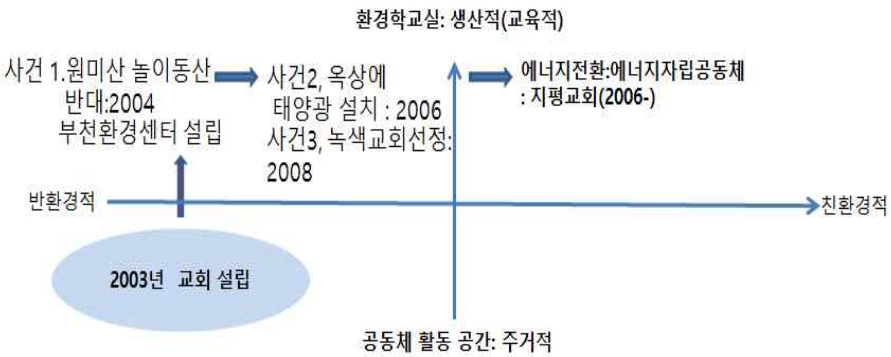
시대	장소적 의미 와 형성 과정
2003년	복사골 왕갈비 5층 건물(원미동 144-92번지)을 매입하여 교회를 설립 :교회의 지향점은 40~50명 정도를 교인으로 하는 작은 교회
2004~2006년: 공론장(소통과정)	-사건 1. 원미산 놀이동산 반대운동 :환경운동시민단체 설립하고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나누는 부천환경운동센터는 교회 부설(2층)에 터를 잡음. -사건 2. 부천시민발전소에서 옥상에 태양광설치를 권유 :교회 중 첫 번째로 태양광 설치(1kW 당 760원을 2021년까지 한전에 판매)하고 매스컴에 노출.
2008~2016: 소통과정 및 마을계획(소통결과)	2008년 녹색교회 선정 후 -사회적 압력을 느끼고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매년 계획. -이산화탄소 다이어트 운동. 1)민들레 농원(평상시 돌보지 않음)은 실패. 2)옥상에 텃밭 만들기(매년 4월 첫째 주, 씨뿌림 주일(기도, 찬송가)) :텃밭 때문에 교인들이 옥상에 올라가며 휴식 공간(생태감수성) 3)지평 절전소 운동: 진단기를 통해 각 가정을 진단하고 3년 후 더 이상 줄일게 없다는 교인들 요청에 잠시 정지한 상태임(2011~2014) 4)생명촛불운동: 다섯째 주 일요일은 전기사용안하고 촛불 예배. 5)교회 안에 온도계설치하고 겨울에 무릎담요 이용과 내복 입기 운동. 6)주차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매달 네 번째 주는 주차 없는 날. 7)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2014~)
소통과 계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有)	녹색마을 만들기: 사람과 사람 소통을 통해 전파 -Nuclear free Festival(2013년 10월) :신재생에너지 체험, 태양열 조리개로 고구마 굽기, 생태공연 등, - '정마실' 운동(2014~): 쓰레기, 주차장 문제 1)경기도 농촌 진흥청에 마을정원공모로 대상. 2)벽화와 텃밭 만들기, 태양광가로등 설치, 마을정원(나무, 꽃 심기)의 정원사로 할아버지, 할머니 임명 등 주민들의 참여가 높았으나 추후 지역 재개발문제로 관심이 멀어지면서 관리도 소홀해짐. - '정마실' 골목축제(2014, 10~): 원미동 노래자랑/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체험 전 등 문화체험부스 운영.

지평교회의 장소적 의미와 형성과정을 요약하면, 1단계: 2003년 건물(원미동 144-92번지)을 매입하여 교회를 설립, 2004년 원미산 놀이동산 건립(建立)을 반대하면서 부천환경운동센터를 교회부설(2층)에 설립하고 2006년

부천시민발전소 소장의 권유로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한 첫 번째 교회이다. 2단계: 2008년 녹색교회로 선정되면서 교인, 지역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중심으로 이산화탄소 다이어트 운동(옥상 텃밭 만들기, 지평 절전소, 생명촛불운동,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추진했다. 3단계: 2014년부터 녹색마을 만들기(Nuclear free Festival, 정마실 운동, 정마실 골목 축제)를 통해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공동체의 장이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역사성에 따른 지평교회의 장소적 이미지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에너지 소비 중심, 사람 중심의 기능적 교회 이미지에서 에너지 생산, 일상생활 에너지 소비 습관 변화, 환경교육 등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자립을 전환하려는 곳이 지평교회이다. 과거(전통), 현재(문화), 미래(자연)이라는 3개의 시간 축으로 에너지자립 지평교회는 부천시 원미동의 상징적 공간으로 친환경적, 대중적, 문화적, 미래지향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부천시 원미동 공간의 역사성에 따른 지평교회의 장소적 이미지 변화를 환경성의 축(친환경적/반환경적)과 주거성의 축(주거적/에너지 생산, 교육적)으로 도식화 하면 아래 <그림 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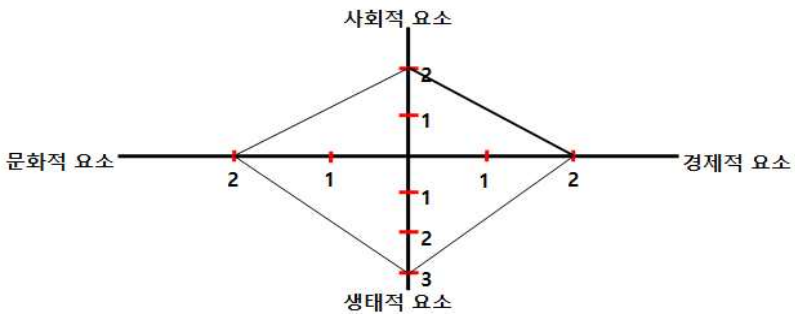
<그림 10>역사성에 따른 지평교회의 장소적 이미지 변화

이 도식에서 지평교회 환경성평가의 친환경성은 다음과 같다. 친환경속성을 보면 원미동 놀이동산 지역 환경문제 반대운동에 참여를 통해 교인들이 공감

대를 형성, 부천환경운동센터를 설립, 부천시민발전소 소장의 권유로 처음으로 교회 옥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매스컴에 소개되었다. 또한 녹색교회로 선정되어 사회적 압력을 느끼며 매년 한 가지씩 실천(옥상에 텃밭 만들기, 절전소 운동, 생명촛불운동,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정마실' 골목축제: 원미동 노래자랑/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체험전 등 문화체험부스 운영)하는 중이다.

한편 경기도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한 지역사회와의 소통 공모전에서 마을정원 부분 대상을 수상하고 벽화, 텃밭 만들기, 태양광 가로등 설치, 마을정원(나무, 꽃 심기)의 정원사로 할아버지, 할머니 임명 등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았으나 추후 지역 재개발 문제로 관심이 멀어지면서 관리도 소홀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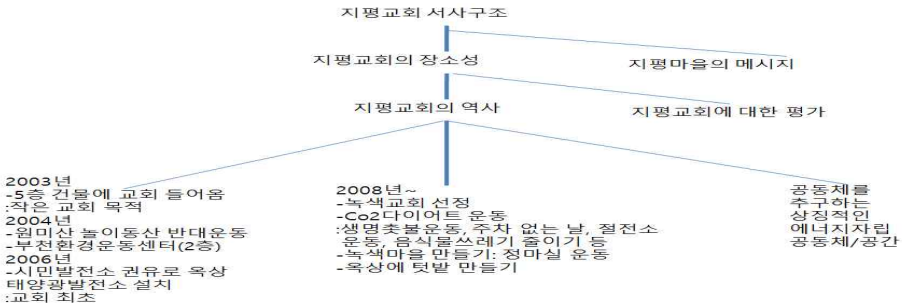
하지만 교회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사회적 요소), 개인과 사회의 경제적 보상(경제적 요소)과 절감 가능, 자원의 절약, 에너지 절약, 자원의 순환(생태적 요소)이 가능하며 친환경적 생활방식이나 문화적인 행동양식(문화적 요소)으로 정착 될 수 있다. 위 내용을 도표화 하면 다음 <도표 4>와 같다.



<도표 4>지평에너지자립교회 환경성평가의 친환경성

4.2. 장소기반 지평교회의 서사성

시기별 장소성은 일정한 갈등과 해결 방안으로 구성되어 새로운 이야기에로의 의미적 변천을 겪는다. 지평교회의 서사구조를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장소기반 지평교회의 서사성

<그림 1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지평교회의 서사성은 지역 환경문제 대안을 찾는 과정을 함께하는 공익적 환경학교실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평교회의 서사구조를 구성하는 사건 요소들이 '원미산 놀이공산 반대', '옥상에 태양광설치' 등으로 연쇄됨으로써, 서사성은 교인과 주민들의 기억에 의해 구축되고 지역 환경문제 대안을 찾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기억(녹색교회)의 공간으로 장소적 의미를 획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3.장소기반 지평교회의 텍스트 기능과 텍스트적 의미

4.3.1 지평교회 텍스트 기능

첫 번째 기능은 '제보적 기능'이다. 이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지평교회를 환경에 대한 철학적 사유와 노력들을 통해서 환경인식을 전환하고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며 지역 및 전 지구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텍스트 기능으로 이해된다. 두 번째 기능은 '접촉적 기능'이다. 인간환경을 개혁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위한 에너지자립 공간을 마련해 텍스트 수용자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세 번째 기능은 '호소적 기능'이다. 부천 지평교회가 추구하는 의미와 변화과정을 통해서 즉, 비환경적이고 에너지 소비에 주체인 지평교회는 에너지전환을 통해서 친환경적, 생태적, 문화(녹색교회)적 등의 이미지로 인식되도록 설득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네 번째 기능은 '상징적 기능'이다. 지평교회는 의사소통 과정 중에서 직접(견학)·간접(전문가에 의한 설명, 미디어)적으로 공간

의 인식이 획득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텍스트 '지평교회'의 지배적 기능은 확장된 소통의 영역에서 수행되는 상징적 기능으로 여겨질 수 있다.

4.3.2 지평교회 텍스트적 의미

지평교회의 절차적 텍스트 유형 모델을 요약하여 도식화 하면 아래<표 15>와 같다.

<표 15> 장소기반 지평교회의 텍스트 유형

<table>
<tr><td colspan="5">장소기반 지평교회의 텍스트 유형</td></tr>
<tr><td>절차 1</td><td>텍스트 기능</td><td colspan="3">제보적, 접촉적, 호소적, 상징적기능</td></tr>
<tr><td rowspan="5">절차 2</td><td rowspan="3">의사소통 형식</td><td>의사소통 방향</td><td colspan="2">쌍방향적, 전시적 성향</td></tr>
<tr><td>의사소통 접촉</td><td colspan="2">시각적 접촉, 체험적 접촉이 지배</td></tr>
<tr><td>언어적 /비언어적</td><td colspan="2">언어적이면서 비언어적 체험이 중요</td></tr>
<tr><td rowspan="2">행위영역</td><td>공적 영역</td><td>공공적 영역</td><td>사적 영역</td></tr>
<tr><td></td><td>교인,주민,시민들을 대상</td><td></td></tr>
<tr><td rowspan="4">절차 3</td><td rowspan="2">텍스트 시제</td><td colspan="2">현재형 주제</td><td colspan="2">무시제 주제</td></tr>
<tr><td colspan="2">에너지자립과 공동체복원</td><td colspan="2">지역과 전 지구적 환경문제해결</td></tr>
<tr><td rowspan="2">텍스트 주제</td><td>생산자</td><td>수용자</td><td>생산+수용자</td><td>파트너외적</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절차 4</td><td rowspan="2">주제 전개</td><td colspan="2">서사적</td><td colspan="2">설명적: 교육적, 체험적</td></tr>
<tr><td colspan="2">에너지자립과 탄소제로 교회를 위한 노력과 공동체 복원</td><td colspan="2">에너지전환을 위한 당위성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td></tr>
<tr><td>실현 형식</td><td colspan="4">정보의 비·조직적 나열</td></tr>
<tr><td>절차 5</td><td>텍스트 내용 (부록 4)</td><td colspan="4">3개의 시간축, 즉 역사(과거), 지역과 전 지구적 환경문제를 해결위해 실천하는 지속가능한 '지평교회'(현재), 자연환경을 위한 '녹색교회'(미래)로 구분되며, 다시 3개의 중점경관(옥상: 태양광발전소, 텃밭, 2층: 부천환경운동센터, 태양광 음식조리개, 지평 절전소, 음식물쓰레기 그래프와 교외 밖 '정마실')으로 구성.</td></tr>
</table>

4.4. 환경관 분석

지평교회는 지역 환경문제에 관한 생태적 한계를 인식하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기술(태양광 발전소 설치)을 이용하여 소비생활을 조절하는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생태적 합리주의측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햇빛인 자연물에게 영적 존재, 내재적 가치를 부여하며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체적 차원(옥상텃밭, 이산화탄소 다이어트: 자동차 없이 교회 오는 날, 이산화탄소 가계부를 만들고 전기사용량을 매달 그래프로 그려 스스로 절약을 생활화, 생명촛불예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그래프)에서 자연의 가치에 영적 각성(종교적 깨달음)을 통해 생활방식의 변화를 체험한다. 또한 소통을 통한 교인들의 친환경적 참여와 적절한 친환경적 사회적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공동체 생활방식이 변화되는 대응 방법을 모색하며 ‘정마실’을 통해 지역주민들 간에 소통과 공동체 복원 등 작은 공동체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생태낭만주의이다.

5. 장소기반 에너지자립마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십자성마을

5.1. 시대에 따른 에너지자립마을: 십자성마을

십자성에너지자립마을의 장소성은 물리적 공간 ‘십자성마을’의 의미 형성과 관련성이 있다. 십자성마을의 공간을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강동구 천호동 속에서 십자성마을이 어떻게 장소적 의미와 이미지를 생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표 16>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십자성에너지자립마을의 서사적 의미와 형성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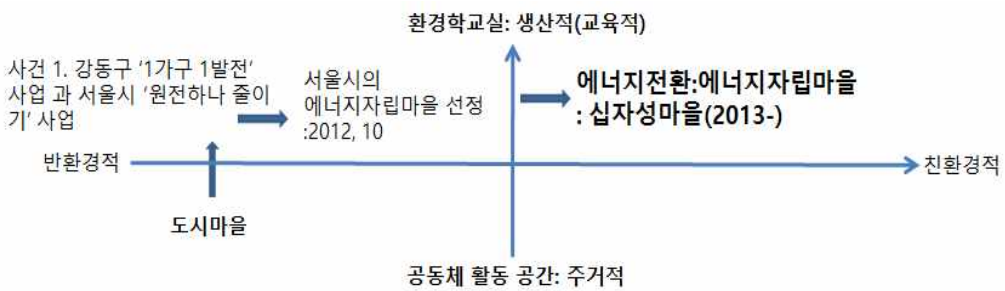
<표 16> 십자성에너지자립마을의 장소성

시대	장소적 의미 와 형성 과정
2011년 이전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대한민국 국군 전상 용사들을 위해 박정희 대통령이 자금을 조달해 지은 마을로, 1974년 10월 31일 십자성마을로 이름 붙인 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들이 모여 사는 도시 공동체. -환갑과 칠순을 넘긴 유공자 어르신과 미망인 가족들로 구성된 46가구 -십자성마을회는 서울지방보훈청의 관할 하에 있다.
2004~2006년: 공론장(소통과정)	-강동구는 마을, 아파트단지, 학교, 복지관, 도서관 등 다양한 유형의 절전소 확산을 추진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및 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에코 마일리지 인센티브, 가정에너지 클리닉 제공 등 주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참여할 수 있는 '1가구 1발전' 사업 중.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에 강동구에서 십자성마을 주민들에게 권유하고 주민들은 사업에 참여.
2008~2016: 소통과정 및 마을 계획(소통결과)	2012, 10월 서울시의 에너지자립마을 선정 된 후 -십자성마을 분들은 인식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교육에 참석. -에너지 절약 노하우를 익히고 생활 속에서 실천. 1)에코 마일리지 가입. 2)멀티 탭을 활용해 스위치 끄기, 에너지 효율이 좋은 단열재 시스템 도입, 50% 정도 자비를 부담해야 하는 태양광시설 옥상에 설치, 옥상과 베란다 텃밭 가꾸기. 3)마을회관은 에너지 환경교육교실로 변모. 4)벽면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현황과 에너지자립마을 절전소 현황판에는 총 46가구의 전기 사용량과 올해 사용량을 비교해 놓은 막대그래프가 있으며 마을의 태양광 설치 가구 수는 30세대로 46가구 중 태양광 발전설비(3kw)설치를 할 수 없는 공동 주택을 제외하고 대부분 참여했다. 5)십자성마을 입구에 위치한 대형 마트 옆에 한 줄로 있는 풍력발전 기과 미니 태양광으로 만든 에너지 가로등이 있다.
소통과 계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有)	-구민회관과 동 주민 센터, 인근중학교와 어린이집 태양광이나 태양열시설 등이 전파. -2013년부터 골목축제 '불을끄고 별을켜다' 행사. -태양광 발전기를 통해 가구당 월 300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이외에도 옥상 녹지조성에 43가구, LED설치에 46가구가 동참하여 에너지자립률을 보면 2014년 26%이고 2014년은 37%이다. -십자성마을은 강동구 에너지투어코스 중 한 곳으로 선정 :강동 선사유적지를 시작으로 홈플러스 앞에 있는 30여개의 풍력발전소를 거쳐 홍보관에서 마을회관까지 이어지는 관광에너지 코스.

십자성마을의 장소적 의미와 형성과정을 요약하면, 1단계: 대한민국 국군 상이(傷痍) 군인의 수용을 위해 서울시 강동구에 조성된 단독 주택 밀집지역이다. 2단계: 서울시 강동구는 에너지 절전소를 확산을 추진하고 태양광 및 에너지효율화 지원, 가정에너지 클리닉 등을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1가구 1발전 사업을 진행 중에 십자성마을을 에너지자립마을에 참여토록 권유하여 형성된 민·관합작 예비 에너지자립마을이다. 3단계: 2012년 10월에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로 선정되었다. 십자성마을 주민들은 에너지교육 참석, 에코마일리지 가입, 마을회관을 에너지 환경교실로 전환, 마을 태양광 설치, 풍력발전기 가로등 설치를 통해 강동구 에너지 투어 코스 중 한 곳으로 지정되면서 환경과 인간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작은 공동체 마을로 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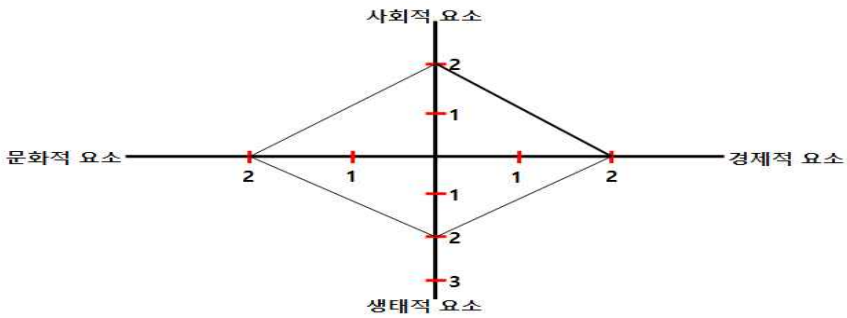
이를 바탕으로 역사성에 따른 십자성마을의 장소적 이미지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에너지 소비 중심, 사람 중심의 기능적 마을 이미지에서 에너지 생산, 일상생활 에너지 소비 습관 변화, 환경교육 등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자립을 전환하려는 곳이 십자성마을이다. 과거(전통), 현재(문화), 미래(자연)이라는 3개의 시간 축으로 에너지자립 십자성마을은 강동구 천호동의 상징적 공간으로 친환경적, 대중적, 문화적, 미래지향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강동구 천호동 공간의 역사성에 따른 십자성마을의 장소적 이미지 변화를 환경성의 축(친환경적/반환경적)과 주거성의 축(주거적/에너지 생산, 교육적)으로 도식화 하면 아래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역사성에 따른 십자성마을의 장소적 이미지 변화

이 도식에서 십자성에너지자립마을 환경성평가의 친환경성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8]'프로젝트에서 농촌마을과 달리 도시마을에서 성공한 사례이다. 지방자치단체(강동구)의 권유와 십자성마을 주민들의 능동적 참여로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어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비용의 절감도 가능하고 상호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며 사회적 압력도 가능하다. 또한 마을자체의 특이성(국가유공자)으로 인해 사회적 유대감이 강하고 적극적 동참과 에너지교육의 참여로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다. 즉, 지자체정책의 변화가 십자성마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양식을 바꾸어나가는데 기여했다. 멀티탭을 활용해 스위치 끄기, 50% 정도 자비를 부담해야 하는 태양광 시설도 옥상에 태양광 시설 설치, 옥상과 베란다에 텃밭 가꾸기와 같은 생활 속의 실천운동은 산업주의적 생활양식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되었다. 이런 점에서 친환경적인 생활방식이 문화적인 행동양식으로 정착된 십자성마을은 지속가능성이 높다. 위 내용을 도표화 하면 다음 <도표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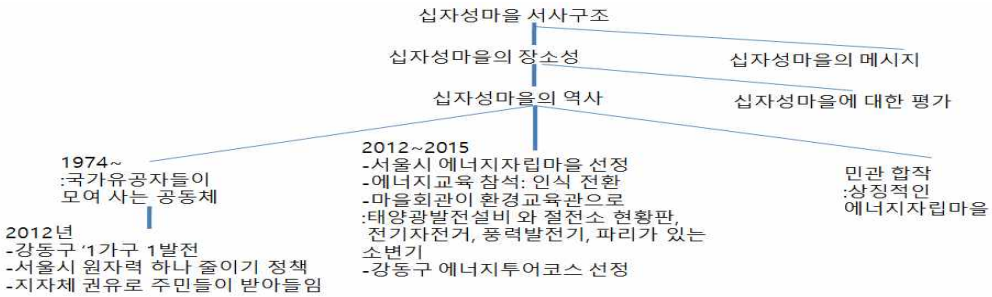


<도표 5>십자성에너지자립마을 환경성평가의 친환경성

8)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정책일환으로 "시민과 함께 에너지 절약하고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확대하여 원자력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대체하겠다"는 목표로 2014년까지 최소한 원전 1기(1GW급)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을 절감하고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전력자급률을 20%로 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건물부분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고효율 수송시스템 구축, 에너지 산업 일자리 창출,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공간구조로 개편, 에너지 저소비 실천, 시민문화창출로 에코마일리지, 에너지 수호 천사단, 에너지 다소비 건물 BRP 등을 추진 중입니다.

5.2. 장소기반 십자성마을의 서사성

시기별 장소성은 일정한 갈등과 해결 방안으로 구성되어 새로운 이야기에로의 의미적 변천을 겪는다. 십자성마을의 서사구조를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장소기반 십자성마을의 서사성

<그림 1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십자성마을의 서사성은 전 지구적 환경문제 대안을 찾는 과정을 함께하는 공익적 환경학교실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십자성마을의 서사구조를 구성하는 사건 요소들이 강동구 '1가구 1발전'과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으로 연쇄됨으로써, 서사성은 거주민의 기억에 의해 구축되고 환경문제 대안을 찾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기억(에너지자립마을)의 공간으로서 장소적 의미를 획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3. 장소기반 십자성마을의 텍스트 기능과 텍스트적 의미

5.3.1 십자성마을 텍스트 기능

첫 번째 기능은 '제보적 기능'이다. 이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마을을 환경에 대한 철학적 사유와 노력들을 통해서 환경인식을 전환하고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며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텍스트 기능으로 이해된다. 두 번째 기능은 '접촉적 기능'이다. 인간환경을 개혁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위한 에너지자립공간을 마련해 텍스트 수용자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세 번째 기능은 ‘호소적 기능’이다. 십자성마을이 역사적 의미와 변화과정을 통해서 즉, 비환경적이고 에너지 소비에 주체인 십자성마을이 에너지전환을 통해서 친환경적, 생태적, 관광적, 문화적 등의 이미지로 인식되도록 설득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네 번째 기능은 ‘상징적 기능’이다. 십자성마을은 의사소통 과정 중에서 직접(견학)·간접(미디어)적으로 공간의 인식이 획득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텍스트 ‘십자성마을’의 지배적 기능은 확장된 소통의 영역에서 수행되는 상징적 기능으로 여겨질 수 있다.

5.3.2 십자성마을 텍스트적 의미

십자성마을의 절차적 텍스트 유형 모델을 요약하여 도식화 하면 아래<표 17>과 같다.

<표 17> 장소기반 십자성마을의 텍스트 유형

<table>
<tr><td colspan="6">장소기반 십자성마을의 텍스트 유형</td></tr>
<tr><td>절차 1</td><td>텍스트 기능</td><td colspan="4">제보적, 접촉적, 호소적, 상징적기능</td></tr>
<tr><td rowspan="5">절차 2</td><td rowspan="3">의사소통 형식</td><td colspan="2">의사소통 방향</td><td colspan="3">쌍방향적, 전시적 성향</td></tr>
<tr><td colspan="2">의사소통 접촉</td><td colspan="3">시각적 접촉, 체험적 접촉</td></tr>
<tr><td colspan="2">언어적/비언어적</td><td colspan="3">언어적이면서 비언어적 체험이 중요</td></tr>
<tr><td rowspan="2">행위영역</td><td colspan="2">공적 영역</td><td colspan="2">공공적 영역</td><td>사적 영역</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학생, 시민들을 대상</td><td></td></tr>
<tr><td rowspan="4">절차 3</td><td rowspan="2">텍스트 시제</td><td colspan="2">현재형테마</td><td>미래형테마</td><td>무시제 테마</td></tr>
<tr><td colspan="2">지속가능한 에너지자립</td><td></td><td></td></tr>
<tr><td rowspan="2">텍스트 주제</td><td>생산자</td><td>수용자</td><td>생산+수용자</td><td>파트너외적</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절차 4</td><td rowspan="2">주제 전개</td><td colspan="2">서사적</td><td colspan="2">설명적: 교육적, 체험적</td></tr>
<tr><td colspan="2">에너지자립
:기반시설과 노력들</td><td colspan="2">에너지전환을 위한 당위성과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하고 활동함</td></tr>
<tr><td>실현 형식</td><td colspan="4">정보의 조직적 나열</td></tr>
<tr><td>절차 5</td><td>텍스트 내용
(부록 5)</td><td colspan="4">3개의 시간축, 즉 역사(과거), 지속가능한 ‘에너지자립마을’(현재), 자연환경을 위한 ‘에너지자립마을’(미래)로 구분되며, 다시 6개의 중점경관(태양광, 풍력발전소, 전기자전거, 에너지 절전소 및 전광판, 텃밭, 파리그림 소변기)으로 구성.</td></tr>
</table>

5.4. 환경관 분석

주민들은 협의, 합의, 합심과 에너지교육을 통해 후손이 살아갈 지구를 조금 더 건강하게 물려주기 위하여 힘을 보탠다는 점에서 생태적 한계를 인식하며 자연에 대한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꾸어 서로가 조화롭게 살 수 있다는 생태계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가구(家口)들을 표시한 마을 지도를 보면, 마을의 태양광 설치 가구 수는 30세대로 46가구 중 태양광 발전설비(3kw) 설치를 할 수 없는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참여했다는 점을 보면, 십자성 마을주민들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구조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구조적 변화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며 합리적 의사결정과 자발성을 보여 에너지자립마을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또한 십자성 마을은 3가지 사업(태양광 발전기, 단열시스템, 옥상텃밭 가꾸기)을 통해 에너지 효율, 자립을 실천하기 위해 생태학적 바람직한 기술 이용과 소비생활을 조절하는 사회를 지향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 할 때 십자성 마을의 환경관은 '생태합리주의'이다.

6. 장소기반 에너지자립마을에 나타난 환경관 분석결과

에너지자립마을의 서사적 의미, 형성과정과 브링커의 텍스트 유형 분석 모델을 통해 추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공간텍스트 ‘에너지자립마을’의 의미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공간텍스트로서 에너지자립마을은 시간축과 경관으로 구성된 주로 제보적, 접촉적, 호소적, 상징적 의미 공간(에너지생산과 환경학교실, 공동체 복원)으로, 에너지자립마을의 텍스트적 의미를 구성하는 다양한 중점경관들은 비조직·조직적으로 나열되어 있으며 파트너의 외적지원으로 주체자와 마을주민들 간의 쌍 방향적 의사소통 형식을 통해 실현된다.

결국 상징적 텍스트 기능을 지니고 있는 에너지자립마을은 민, 민·관 , 관 주체들의 주체적, 정책적 판단에 의해 만들어 진 의사소통의 공익적 전시텍

스트로 의미구성체이다. 이를 바탕으로 장소기반 에너지자립마을에 나타난 환경관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환경관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규정함에 있어서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와 생태중심주의(Ecocentrism)환경관으로 분류하며 하위 유목으로 인간중심주의는 환경관리주의, 생태중심주의는 생태합리주의와 생태낭만주의로 나누어진다.

이 연구에서 에너지자립마을의 서사성과 형성과정을 자연환경, 인간환경, 환경문제 및 의사결정 참가자 그리고 수사특징으로 '환경관' 을 살펴보면, 환경관리주의[9](월곡마을), 생태합리주의[10](십자성마을, 등용마을), 생태합리주의와 생태낭만주의[11](중금마을, 지평교회)의 융합으로 나타나면 중금마을과 지평교회는 자연의 가치에 대한 개인적 깨달음, 영적 각성과 공동체복원, 작은 공동체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생태합리주의에서 생태낭만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

9) 환경관리주의는 1) 자연은 인간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자연의 이용과 지배가 가능한 대상이며 자연요소에 도구적 가치를 지니며 자연은 인류로부터 동떨어진 것이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므로 동·식물이전이 가능하며 생태계는 평형을 유지하며 쉽게 깨지지 않는다. 2) 과학기술 발달의 한계는 있으나 과학기술이 믿음이 강해서 과학기술의 발달로 극복 가능하며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이다. 3) 자원과 거주 공간의 한계를 인정하나 적절한 관리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측면에서 전문가와 소수의 대중 참여를 인정한다. 4)이용, 관리, 자원의 한계, 정책, 규제, 경제논리로써 자연을 본다.

10) 생태합리주의는 1)인간과 자연은 평등한 관계이며 모든 생물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복잡한 생태계로 구성된 자연으로 보고 동·식물이전이 가능하다는 경향이 크지 않다. 2)생태적 한계를 인식하며 자연은 인간의 방식을 바꾸어야 잘 유지 될 수 생태계로 인식을 통해 생태적 바람직한 과학기술과 소비생활의 조절하는 사회를 지양한다. 3)합리적 이성에 의한 민주적인 절차를 중시하고 사회구조 변화로 환경문제 해결을 하며 대중의 참여를 강조한다. 4) 생태적 합리성, 합리적 문제해결, 대안적 과학기술 사용 과 합리적 의사소통을 강조한다.

11) 생태낭만주의는 1) 자연은 본질적으로 중요하며 진정으로 살아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인간은 자연에 관계를 만들며 영향을 주고받는 역동적 관계이며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내재적 가치를 부여하며 자연이 인간의 도구화 되는 것을 반대하고 인간의 힘과 능력에 대한 찬양 보다는 자연의 질서와 법칙에 대한 존중이 나타나 동· 식물 이전은 불가능하다. 2) 생태적 한계가 존재하며 한계 상황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인정하지만 사회구조에 대한 무관심하고 과학기술과 사회발전의 관계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임. 그리고 인간중심개발논리나 자연의 정복관의 논리에 비판적 입장을 취함. 또한 농업중심의 공동체 사회가 이상향중 하나임. 3) 집단 행위자를 무시하며 개인적 차원에서 계몽을 통한 가치관과 행동양식의 근본적 '의식의 전환'을 추구하며 자연의 가치에 대한 영적 각성, 종교적 깨달음, 생활방식의 변화로 대응 방법을 모색함. 새로운 대안적 가치(비 서구, 탈근대, 영성, 여성)와 새로운 문화를 통해 환경위기를 극복. 4)생태적 보존, 감성, 몰입, 감정이입, 직관, 생태적 감수성, 어머니 대지, 종교적 깨우침, 생명윤리, 자연친화적 본성, 영성 등

이 공간텍스트에 나타난 에너지자립마을 환경관 분석결과는 다음<표 18>과 같다.

<표 18> 에너지자립마을 환경관 분석결과

환경관 분석틀 /마을, 공동체	인간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							
	환경관리주의				생태합리주의				생태낭만주의			
	자연 환경	인간 환경	환경 문제	수사	자연 환경	인간 환경	환경 문제	수사	자연 환경	인간 환경	환경 문제	수사
월곡	√	√	√	√								
등용					√	√	√			√		
십자성					√	√	√	√				
중금					√	√	√			√		√
지평					√	√					√	√

따라서 본 논문은 주요 에너지자립마을에 함의된 환경관을 ‘생태중심주의 환경관’으로 명명하였다.

Ⅵ. 형성 과정 및 환경교육 시사점

이 연구에서 에너지자립마을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는가? 서사과정은 행동과 생각, 감정, 경험을 변화시켜 가는 통로를 말하는 것으로 교육과 학습을 바탕으로 에너지자립마을의 형성과정 및 장소성의 기본구조는 아래 <표 19>와 같다.

<표 19> 에너지자립마을의 형성과정 및 장소성

에너지 자립마을	인식전환 계기/ 형성과정 및 장소성	환경관	장· 단점		지속 가능성
			장점	단점	
등용마을	• **'인식전환' 계기(국책사업)** -사건 1. 새만금간척사업 -사건 2. 방폐장폐기물건립 • **형성과정** -부안시민발전소 건립(주민) -재생에너지시설 설치 :태양광(8개), 태양열, 지열 -에너지자립 프로젝트 ①에너지 소비량 10%줄이기 ②저소득층 주택 단열 개선시 범 사업.③체험 프로그램 운영(교육관):자전거 발전기, 풍력발전기,태양광 조리개 등 -생태학교 운영:에너지자립, 올바른 농산물 생산, 가치교육 등	생태 합리주의 ∨ 생태 낭만주의	• **장점** ①민간 컨설팅과 '그린빌리지' 사업 (외부지원)이 공동사업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②종교지도자와 주민들의 소통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실천하려 는 의지 강함. ③견학공간으로 전파가능성 높음. • **단점** ①현재 태양광발전 kW당 전기단가 인하로 경제성이 떨어짐. 자체적으로 에너지자립마을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외부지원이 필요함. ②자원의 순환성이 약하다.	강
중금마을	• **'인식전환' 계기** -외부교육(개인) :전북의제21대안에너지 워크숍 -내부교육(주민)	생태 낭만주의 ∨ 생태 합리주의	• **장점** ①한 구성원의 생각이 에너지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어 마을에 실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전파되어		강

	:쓰레기분리수거 실천 • **형성과정** -마을 쓰레기분리수거 -그린빌리지사업 :태양광발전소 설치(11개) -마을수목원사업 진행 -공동체 복원사업: ①공동 방앗간, 농장 운영②무인 에너지 카페 운영③전기, 일반 자전거 운영④작은 도서관 :생태교육, 방과 후 수업(사회적 기업 연계), 정크아트, 벽화그리기 등		파급효과가 크다.②주민들간(間)소통으로 마을환경에 대한 토의와 논쟁이 계속이루어지고 사업이 진행될수록 주민들의 참여와 자발성이 강함. ③견학과 체험장소가 있어 외부 전파 가능성이 높다. • **단점** ①바이오 디젤기계를 적용시 비용이 발생. ②에너지 사용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	

에너지 자립마을	인식전환 계기/ 형성과정 및 장소성	환경관	장· 단점		지속 가능성
			장점	단점	
월곡마을	• **'인식전환' 계기** :농어촌 뉴타운조성(귀농,귀촌) • **형성과정** -미래형 에너지자립마을 :100세대 선정, 정부지원 -에너지절감시설 설치(태양광, 지열) :외부 기업과 협업 -목조주택,텃밭,생태조경사업 -음식물 쓰레기분리 수거기계 및 집하장 설치, 운영	환경 관리주의	• **장점** ①정부와 지자체의 협약으로 전체 세대의 에너지절감시설이 설치되어 에너지자립이 가능 ②경제적 보상과 사회적비용 절감 • **단점** ①주민들 간 소통부재로 사업이 확대 되지 못함 ②기술만 있고 사람과 자연이 어울리지 못함③교육부재로 '인식전환' 계기 미흡		중 (현재) ↓ 약 (미래)
지평교회	• **'인식전환' 계기** -원미산놀이동산 건립 반대 -태양광 옥상에 설치: 매스컴에 노출되면서 '사회적 압력' • **형성과정** -교회 최초로 교회건물 옥상에 태양광 설치 -녹색교회 선정(2008년)	생태 낭만주의 ∨ 생태 합리주의	• **장점** ①작은 것부터 실천 행동하여 환경의 '의식전환' 계기 마련②교인들과 주민들의 유대감이 강하고 소통으로 사업의 진행 속도가 빠름 ③담임 목사의 설교 및 교육을 통한 소통으로 실천이 빠		중

	-CO2다이어트 운동 전개 :옥상텃밭만들기,생명촛불운동,절전소운동,잔반줄이기운동 등 -녹색마을 만들기 : '정마실' 운동 -정마실 골목축제(햇빛의 날) :노래자랑, 에너지문화체험운영		르게 전파 • **단점** ①재개발문제로 주민들의 동요 발생, '정마실' 운동 주춤 ②외부지원이 적어 사회· 경제적 보상이 적으며 사업 진행속도가 느림③담임목사 한 개인의 역할이 너무 커서 후(後)일은 변화가능성이 큼	
십자성 마을	• **'인식전환' 계기** -강동구 '1가구1발전' 정책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주민들에 에너지교육 참여 • **형성과정** -국가유공자들이 모여 사는 곳 -에너지자립마을 선정 -태양광 옥상 설치(주택,회관) -에너지교육 적극적 참여 -마을회관 및 주변 :태양광발전설비 현황판,절전소,전기자전거,파리그림소변기/풍력발전기(태양광) 가로등 -태양광시설이 주변으로 전파 -강동구청은 십자성마을을 에너지 관광코스로 지정	생태 합리주의	• **장점** ①주민들과 강동구청의 소통(민· 관 협업)으로 도시마을에서 성공한 에너지자립마을이다. ②유대감이 강한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의식전환' 속도가 매우 빠르다. ③미래세대를 생각하는 미래 자립형 도시마을이다. • **단점** ①자원의 순환성이 크지 않다. ②마을주민들의 연령이 높아서 후(後)에 유대감이 약해질 가능성이 존재함	강

에너지자립마을 형성 과정의 첫 시작은 외부의 사건(지역 환경문제 반대운동 및 외부 권유)과 교육 참여이다. 이 사건은 성찰과 반성이라는 내부적 요소를 거쳐 경험으로 받아들여졌다. 즉, 에너지자립마을 형성에 미치는 결정적 경험을 보면, 환경에 대한 인식전환을 한 경험(방폐장, 원미산놀이공원 반대운동, 정부, 지자체 정책 및 시민발전소 권유)과 교육 참여(전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에너지교육, 원전사고 심각성)를 통해 삶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경험이다.

이 경험들은 정부, 지자체, 공동체, 개인 안에서 융합되면서 '에너지자립마을이 지구를 구한다'는 가치를 공간에 실천하고 구현하는 곳이 에너지자립마을이며 목표(비전)와 실천방식(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람과 인간, 자연환경에 소통과 상호작용)에 따라 모습이 다르다.

에너지자립마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숙의 경험을 이어 가는데, 결정적 경험을 이끈 지역, 전 지구적 환경문제들이 우연히 마주친 것이라면, 성숙의 경험(일상적 삶속에서 소통을 통한 실천, 연례행사, 골목축제, 연극, 생태교육)을 이끈 사건은 의도성을 갖는다. 성숙한 에너지자립마을은 생태중심주의 환경관을 삶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연한 모습으로 에너지자립을 추구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이는 생명은 평등하다는 생태중심주의를 이해하고 실천한 노력들이다.

성숙한 에너지자립마을을 이해한 개인, 공동체, 주민들은 에너지자립마을의 삶을 바람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는 에너지자립마을이 추구하는 철학적 사유(생태중심주의)와 노력들이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고 지속적인 실천행동을 통해 의미 있는 공간으로 발현될 수 있는 장소정체성을 형성하였다.

한편 장소정체성을 획득한 에너지자립마을은 가치를 전환하게 되는 결정적 배경과 함께 교육 요소들을 통해 학습된 철학적 사유(생태중심주의)와 노력들의 의미구성체이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학습은 다양한 구조 속에서 복잡한 작용의 결과(한승희, 1999)이므로 개인, 시민, 공동체 등이 일상적 삶을 통해서 얻는 경험은 일생 동안 환경 영역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아 소통하고 상호작용하여 나온 결과물이다. 즉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에너지자립마을을 경험하며 학습할 수 있다.

전환학습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며, 메지로우(Mezirow, 1997)는 결정적인 경험을 통해 개인, 공동체, 지자체 등이 갖고 있는 철학적 사유에 의문을 제기하고, 반성을 통해 인식이 전환되는 과정과 결과를 전환학습이라고 말한다. 에너지자립마을은 '환경', '생명' 가치를 인식하고 깨달음을 얻고 마을기반으로 개인, 공동체, 지자체, 지자체와 주민들의 협업을 중심으로 일상적 삶을 바꾸어 나간다는 점에서 전환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전환이 성인기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메지로우(Mezirow, 1997)의 이론을 따른다. 더불어 에너지자립마을에서 일어난 전환학습의 결과는 우주와 자연, 개인 사이의 연관성을 인식하는 공동체와 지구로 확장되는 비전 전환(O'Sullivan, 2002)의 모습과 맥을 같이 한다. 에너지자립마을에 일어난 전환은 환경관의 전환이라 부를 수 있으며 경험의 융합이라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으며 에너지자립마을의 형성과정과 현재, 미래의 발전된 모습이 평생학습의 맥락 속에서 이해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점에서 학습은 우리 사회의 삶 속에서 발생한다는 관점(Jarvis, 2006)과 학습자와 인간·자연환경 사이의 소통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과정이라는 시각(Illeris, 2002)으로 학습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다. 즉, 학습은 일상적 삶의 관점에서 보아야하고, 삶의 경험이 중요한 시발점이 되어 경험을 비판적 반성을 통해 기존에 갖고 있는 관점을 전환시키고 이러한 전환의 과정과 결과가 학습이 된다. 더불어 학습은 학습자의 맥락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보면, 학습은 학습자의 내부적 요소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관계(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람과 인간·자연환경)들의 소통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며, 학습자 개인의 발달은 공동체의 발달을 유도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지역적 환경문제 및 전 지구적 환경문제가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에너지, 지구온난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서 '에너지자립마을'이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에너지자립마을이 사회적, 환경적 의미를 갖고 있는 의미구성체로 보며 이 속에 내포된 환경관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를 실시했다.

주요한 연구 질문은 에너지자립마을은 어떤 철학적 사유와 노력들을 거쳐 에너지자립마을로 형성 됐는가?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서 다섯 곳의 에너지자립마을을 선택하여 기호학과 공간텍스트, 미학 등의 인문학적 문화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장소기반 에너지자립마을(공동체)이 창조하는 공간텍스트를 구성한다.

공간텍스트의 구성요소들을 분석하기위해 환경관 논의를 구성하고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장소기반 에너지자립마을에 나타난 환경관을 분석을 하여 연구 질문에 답을 찾고자 했으며 주요한 장소기반 에너지자립마을을 통해 밝혀진 환경관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자립마을은 일원론적 세계관을 함의하고 있었다. 에너지자립마을에서는 자연, 즉 전 지구적 한계 인식을 하고 지구와 인간이 어떤 관계로 화합해야 하는지에 나타나 있으며 이것은 인간을 생태계의 일부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자연은 인간의 욕망 충족을 위한 단순한 자료나 도구가 아니며 인간과 함께 하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이여 더 나아가 고유한 의미를 지닌 살아 있는 존재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에너지자립마을은 자연과 인간에 대한 순환적 유기체 사상이 함의되어 있다. 환경의 문제는 상호의존적 세계, 연관성에 대한 단절과 해체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나 에너지자립마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상호의존하고 있어 인간과 자연계를 '상호 의존적 생성' 또는 '생태적 사슬구조', 즉 생태적 한계를 인식하며 인간과 자연은 평등하다는 인식을 갖고 사회적, 정

치적, 경제적 구조변화에 관심을 갖으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과학기술을 이용, 소비생활을 조절하는 것과 더불어 농업중심의 공동체 사회 및 작은 공동체를 이상향으로 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에너지자립마을에는 친환경 과학기술 이용과 자원을 사용한 환경관리주의 환경관이 함의되고 있다. 인간은 자연세계에 대해 순응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대하는 태도보다는 인위적인 작위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해 나 갈 수 있음이 나타났다.

넷째, 에너지자립마을은 환경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자 측면에서 볼 때 민주적인 절차를 중시하고 생태적 쟁점들의 마을(공동체), 사회적 차원에서 생태교육을 통한 인식전환과 사람과 사람사이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마을구조의 변화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 계몽을 통한 가치관 행동양식의 '인식의 전환'을 추구하며 자연가치에 대한 영적 각성과 종교적 깨달음을 통해 생활방식의 변화를 찾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에너지자립마을에 함의된 환경관을 '생태중심주의 환경관'으로 명명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에너지자립마을에서는 자연을 이원론적으로 보지 않으며 무성생식의 아메바(amoeba)처럼 일원론적으로 보았다. 현대 환경문제의 원인 중의 하나가 인간과 자연을 이분화하여 자연을 정복의 대상, 착취의 대상으로 본 이분법적 환경관을 바탕으로 한 인간중심주의 환경관이라는 점을 고려 할 때 생태중심주의 환경관이 함의된 에너지자립마을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회적 공간으로서 가치가 있으며 에너지자립마을에 일어난 전환은 환경관의 전환이라 부를 수 있으며 경험의 융합이라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어 에너지자립마을의 형성과정과 현재, 미래의 발전된 모습이 평생학습의 맥락 속에서 이해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형성과정 및 장소성을 기반으로 하여 에너지자립마을에 대한 제언(提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소기반 에너지자립마을에 장소에 따라 다른 친환경속성과 환경관

이 나타나거나 일부 측면만이 강조되는 경우가 있어 이것을 환경교육 매체로 활용할 시(時) 주의가 필요다. 따라서 교사가 환경교육을 위해 이미지를 활용할 시에는 장소기반 에너지자립마을의 환경속성과 내포된 환경관을 사전에 파악하여 선별적으로 활용한다. 또한 환경속성을 찾고 그 속에 담겨진 환경관을 이해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현 환경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에 대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성찰을 통한 장소정체성을 형성하고 바람직한 환경관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둘째, 장소기반 에너지자립마을을 견학을 할 때, 장소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환경속성과 환경관을 조사하고 환경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 했는지를 파악하여 학생들이 견학 시(時) 재미위주가 아니라 견학 과정(설립배경, 주민들의 의사결정과정, 기반시설 설치과정, 실천생활모습 등)을 자료를 제시해주며 장소기반 에너지자립마을에 대한 전체적인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장(場)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현재 존재하는 에너지마을의 장·단점, 지속가능성 여부를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제시하여 재생에너지에 중요성, 환경인식의 사고전환, 기성세대의 노력과 헌신, 자연과 인간은 하나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참고 문헌

<국내>

구도완. (1994). 한국 환경운동의 역사와 특성.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구도완. (1996). **한국 환경 운동의 사회학 :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서울: 문학과 지성사.

구도완. (2006). **한국 환경운동의 담론: 낭망주의와 합리주의**. 경제와 사회.

권영락. (2005). 장소기반 환경교육에서 장소감의 발달과 환경의식의 변화.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권영락 · 황만익. (2006). "장소감의 환경교육적 의의". **환경교육**, 18(2), 55-65.

권현지. (2012). 장소기반 미술교육의 환경감수성 증진효과 실행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김진경 · 나경훈 · 남호정. (2013). 지속가능한 패키지 디자인과 감성이미지와 상호관계. **한국과학예술포럼**, 14, 372-388.

김정욱. (2015). 기후변화시대의 지속가능한 에너지(**한일공동 국제워크숍 발표자료** -기후변화 적응의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아시아기후변화센터·일본호세이대학 지속가능발전연구소.

김양희. (1993). **환경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김영순 · 임지혜. (2008). “텍스트로서 ‘춘천’의 공간 스토리텔링 전략: 여가도시로의 의미화를 중심으로”. **언어과학연구**, 44, 언어과학회.

김영순. (2011). **스토리텔링의 사회문화적 확장과 변용: 텍스트와 이미지에서 문화교육으로**. 북코리아.

김인. (1991). **도시지리학 원론**. 법문사

김희경. (2011). '에코맘'의 삶과 형성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남상준. (2005). **환경교육론**. 서울: 대학사.

남상준. (2012). 환경교육 논의의 환경관 중립적 성격과 환경교육의 무정형성, **사회과교육연구**, 14, 163-179.

노경임. (1999). 환경관 분석 틀의 개발 및 환경관에 따른 인식 특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녹색연합. (2010). **에너지자립마을을 위한 지침서**. 서울: 녹색연합.

맹은혜. (2011). 초등국어교과서 텍스트에 나타난 환경관의 변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문순홍. (2006). **생태학의 담론**. 서울: 아르케.

박우연 · 남상준(2006). 환경동화에 나타난 환경관 분석. **초등사회과교육**, 18(1), 47-65.

박이문. (1994). **환경철학**. 서울: 미다스북스.

박서호. (1993). 사회와 공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박경호. (2009). 전환학습이론: 고등교육기관에서 중년여성학습자의 의미구조의 변화. **한국성인교육학회**, 14(1), 31-60.

백승국. (2004). **문화기호학과 문화콘텐츠**. 다할 미디어.

사회 3-1 초등학교 교사용지도서. (2010). 교육과학기술부.

조명래. (2013). **공간으로 사회 읽기**. 한울아카데미.

조영달. (2015). **질적연구방법론: 학교와 수업 연구의 새 지평**. 서울: 근사.

조용환. (1999).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교육과학사.

전소영. (2013). 환경 공익광고에 나타난 환경관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전북발전연구원. (2009). **농어촌 분산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방안 연구**.

정대연. (2003).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주대학교 출판부.

조용개. (2008). 생태학적 삶을 위한 환경윤리와 교육. **한국학술정보**.

안정석. (2010). 세종실록에 함의된 환경관.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양미경. (2001). "체험학습의 의미 및 조건의 탐색과 예시자료 개발", **교육학연구**, 39(1), 167-196.

이경아. (2007). 제품 개발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디자인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이무용. (2005). **공간의 문화정치학**. 서울: 논형.

이무용. (2006).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장소마케팅 전략**. 서울: 논형.

임채홍. (2011). 서비스디자인의 친환경 요소에 대한 사례 연구. **디지털디자인연구**, 11(3).

이석환 · 황기원(1997).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2(5), 169-184.

이-푸 투안. (1995). **공간과 장소**. 구동희 · 심승희 옮김. 대윤.

오장근 · 김영순 · 백승국. (2006). **텍스트와 문화콘텐츠**. 한국문화사.

오장근. (2008). 도시 공간 '청계천'의 서사성과 문화정체성, **한국학술진흥재단**.

윤순진. (2003).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정책 개선방향,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1), 269-299.

클라우스 브링커(1995). **텍스트언어학 입문**. 이성만 역. 한국문화사.

Creswell, J. W(2007). **질적 연구방법론.** 조홍식 · 정선욱 · 김진숙 · 권지성역 (2010). 서울: 학지사.

최석진 외. (1999). **학교환경교육 내용체계**. 환경부.

최석진 외. (2001). **체험환경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국환경교육학회.

한승희. (1999). 학습생태학적 입장에서 바라본 성인 학습. **평생교육학연구**, 5(1), 223-224.

한면희. (1997). **환경윤리: 자연의 가치와 인간의 의무**. 서울: 철학과 현실사.

한면희. (2010). 현실 녹색정책의 이념과 생태주의 사상. **동서사상**, 8, 161-184.

한국공간환경학회 편(2000). **공간의 정치경제학**. 서울: 아카넷

환경부. (2011).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목표 개선방안 연구**.

<국외>

Coombs, P. H. & Ahmed, M. (1974). *Attacking rural povety: how nonformal education can help*.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Dryzek, J. S. (1997). The politics of the earth : environmental discours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정순진 역. (2005). **지구환경정치학담론**. 에코리브르.

Eckersley, R. (1992). *Environmentism and Political Theory Toward an Ecocentric Approach*.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Johnston, R. J., D. Gregory and D. M. Smith. (1994).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third ed), Oxford: Blackwell.

Jarvis, P. (2006). *Toward a comprehensive theoory of human learning*. London, Routledge.

Hopwood, N. (2007). Environmental education: pupils' perspectives on classroom experience. *Environmental Education Reesearch,* 13(4), 453-465.

Ingraham, B. (1990). *Project Wild and The Dominent Western Paradigm: A Content Analysis Utilizing Deep Ecology*. M.A.Thesis, California State University, Chico.

Illeris, K(2002). *The three dimensions of learning : contemporary learning theory in the tension field between the cognitive, the emotional and the social*. Roskilde: Roskilde University Press.

Meadows et al. (1972). Limits to Growth. 김승한 역(1990). **인류의 위기**. 삼성 미술문화재단.

Mezirow, j. (1994). Understanding Transformation Theory. *Adult Education Quarterly*, 44(4), 222-244.

Naess, A. (1973). "The Shallow and the Deep, Long-Range Ecology Movement : A Summary, *Inquiry*, 16, 95-100.

O'Riordan, T. (1981a). *Environmentalism*. London: Pion Limited.

O'Riordan, T. (1981b). Environmentalism and education,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5(1), 3-18.

Orr, D. (1992), *Ecological Literacy: Education and the tradition to a postmodern world*,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O'Sullivan, E. (2002). The project and vision of transformative education: Integral transformative learning. In O'Sullivan, E., Morrell, A., & O'Connor, M. (Eds.), *Expanding the boundaries of transformative learning : essays on theory and praxis* (pp. 1-12). New York, Palgrave.

Palmer, J. A. Suggate, J., Bajd, B., & Tsaliki, E. (1998). Significant in fluences on the development of adults' environmental awareness in the UK, Slovenia and Greece. *Environmental Education Research*, 4(4), 429-444.

Pepper, D. (1984). *The Roots of Modern Environmentalism*. London: Groom Helm Ltd. 이명우 외 역(1996). **현대환경론: 환경문제에 대한 환경철학적· 민중론적 이해**. 서울: 한길사.

Sanger, M. (1999), Sense of place and educa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30(4), 4-8.

Semken, S & Brandt. E. (2010). *Implications of place and place-based education for ecological integrity and cultural sustainability in diverse places*. in Tippins, D. j.(eds).

Sobel, D. (2004). Place-based education, MA: The orion society. **Nature literacy series**. No. 4.

Taylor, E. W. (2008). Transformative learning theory, ***new direction for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119, 5-15.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Limited, London.

Relph, E. (1976).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 외 역(2005). 논형.

Tuan, YI-fu(199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The Un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sota.

<웹사이트>

·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http://www.korean.go.kr

· 서울특별시: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 전북의 재발견:http://blog.jb.go.kr/130170443652

· 부천환경교육센터:http://blog.daum.net/greencenter1929

· 부안시민발전소:http://buanpower.tistory.com

· 기독교환경연대: http://www.greenchrist.org

부 록

<부록 1> 등용에너지자립마을의 중점경관

1)등용마을은 이해 문제로
- '견학' 정지 상태

2) 2016년 부안군청에서 에너지자립마을 선정으로 다시 준비 중.

<부록2> 중금에너지자립마을의 중점경관

<부록 3> 월곡에너지자립마을의 중점경관

<부록 4> 지평에너지자립교회의 중점경관

<부록 5> 십자성에너지자립마을의 중점경관

Abstract

Analysis of the View of Environment in Place-Based Energy Self-Sufficient Village

Kim, Gil Ryong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Environment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f people ignore no small things and do their best at them, they will become sincere. If their sincerity oozes out, the world around them will become bright. They will be able to move others, change the world, and thus promote growth and development. Only those who are as sincere as they can be in the world will change the world as well as themselves." (*Doctrine of the Mean*, Chapter 23) Keeping those words in the heart and mind, taking a further step with environmental issues, and taking another powerful step to the solution of global environmental issues through his own little practice and perception change, the investigator set "energy self-sufficient villages" as the topic of this study.

The goal was to analyze the environmental views of five energy self-sufficient villages, which contemplate over and practice energy self-sufficiency at the individual, community (village), religious group, local government, and central government level to solve the current environmental issues in lif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investigator devised a space story for energy self-sufficiency sought after by the subjects of energy self-sufficient villages with the philosophical thinking and effort of environment inherent in them, then reorganizing a space text.

Environmental views were categorized into anthropocentricism (principle of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ecocentrism (ecological rationalism and ecological romanticism) to analyze the semantic constructs of energy self-sufficient villages. The text analysis and evaluation criteria were systematically classified according to the natural and human environment, solution of environmental issues, participants in decision-making, and rhetoric characters to analyze environmental views.

The analysis results of environmental views of place-based energy self-sufficient villages examined in the study show that they had an environmental view of ecocentrism.

First, the energy self-sufficient villages had an undertone of monistic world view. They regarded nature or man as part of ecosystem and believed that nature was not a mere material or tool to satisfy human needs, had its internal values of being with man, and further was a living thing with its unique meanings.

Second, the energy self-sufficient villages also had an undertone of cyclic organism ideology about nature and man. In those villages, everything was mutually dependent each other. Man and the natural world were in a structure of "mutually dependent creation" or "ecological chain." That is, the villagers recognized the ecological limitations, believed man and nature were equal, took interest in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al structural changes, controlled their

consumption life by taking advantage of ecologically desirable scientific technologies, and found a Utopia in agriculture-based community society or small community.

Third, those villages also had an undertone of environmental control principle-based environmental view to use environment-friendly science and technology and resources. It was found that man was able to solve problems rationally and develop themselves through artificial intentions rather than an adaptive and passive attitude toward the natural world.

Fourth, the villages put an emphasis on the democratic procedures as villages (communities) in the aspects of environmental issue solution and decision-makers. They highlighted the resolution of environmental issues and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through a shift of perception based on ecological education,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s between people, and changes to the village structure at the social level. At the individual level, they pursued a "shift of perception" in their values and behavioral styles through enlightenment and searched for changes to their lifestyles through a religious realization of natural values.

Based on those findings, the study made the following proposals for placed-based energy self-sufficient villages:

First, there were different environment-friendly attributes or environmental views according to places in place-based energy self-sufficient villages in some cases. Only certain aspects of them were emphasized in other cases. It is thus necessary to be careful about their utilization as a medium of environmental education. It is also needed to offer the students an opportunity to think fully and discuss and help them form their own place identity through introspection and learn desirable environmental views instead of accepting them unconsciously.

Secondly, the students need to conduct a preliminary study before a field trip to a place-based energy self-sufficient village, examining the environmental

attributes and views and figuring out how environmental issues have been resolved. A set of field trip process materials will help them understand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place-based energy self-sufficient villages as the venue of experiences on a field trip.

Finally, the teachers should make efforts and provide their students with the information about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nd sustainability of current energy villages so that those villages can be places where the students can experience the importance of renewable energy, a shift of environmental awareness, efforts and devotion of the older generation, and oneness of nature and man.

Keywords : energy self-sufficient village, space text, place-based, the View of Environment, ecocentrism, shift of perception

Student Number : 2007-21725